

글로벌 경제금융 동향

- 2014 부산특화금융아카데미 -

2014. 2. 19



Contents

I 세계 경제

II 국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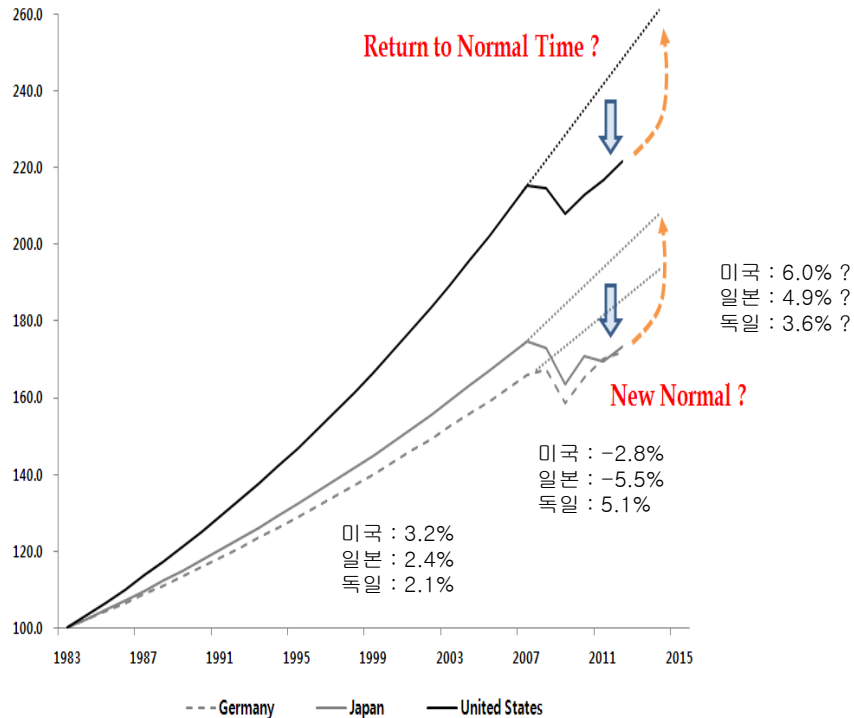
III 주요이슈 점검



I 세계 경제

들어가며

경제



주: 국가별 GDP를 표준화(1983=100)하여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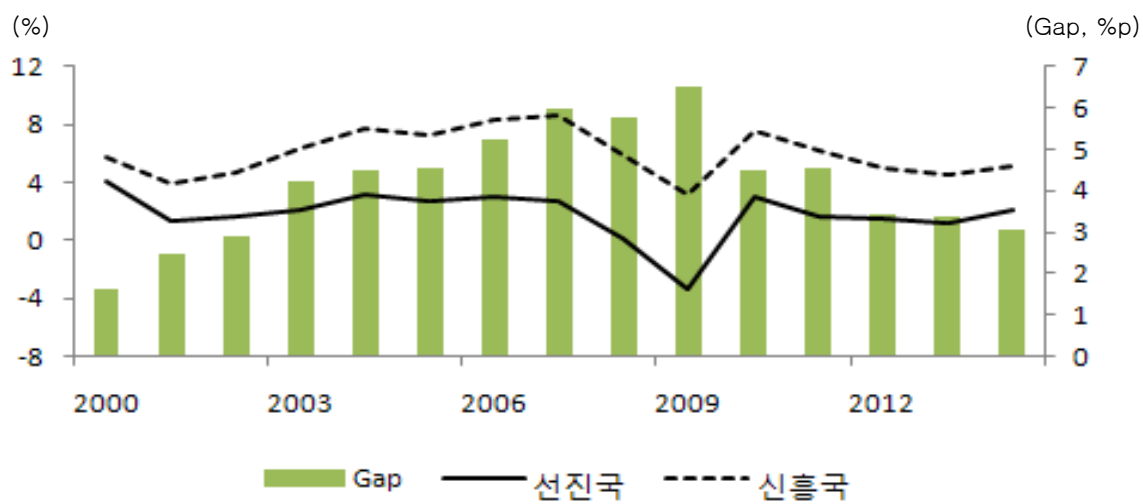
금융



*자료 : KCIF

※ 참고

신흥국과 선진국 성장률 G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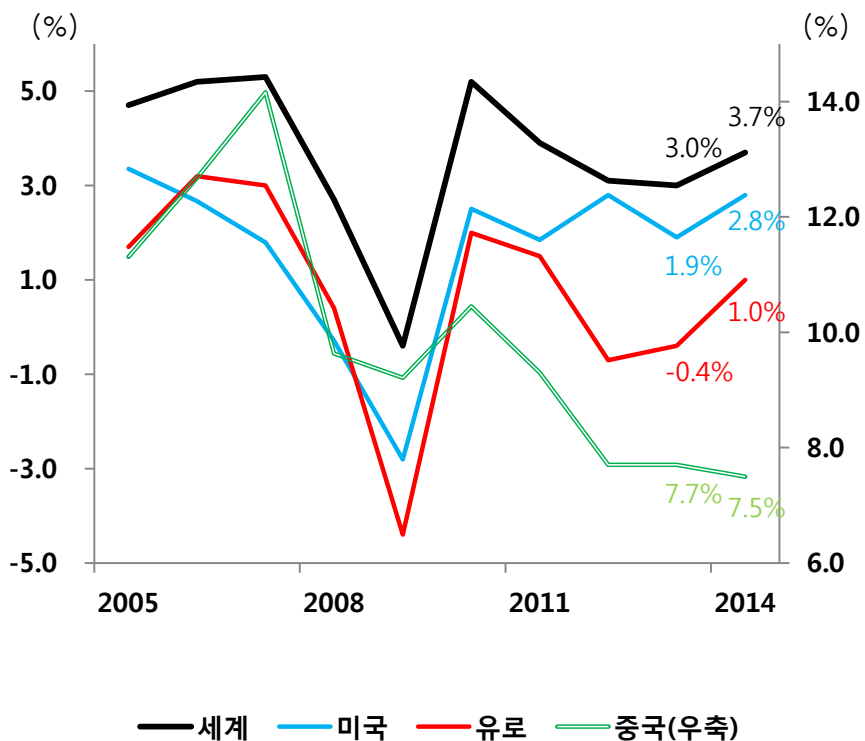
시각 1 – upward path

Dr. Doom 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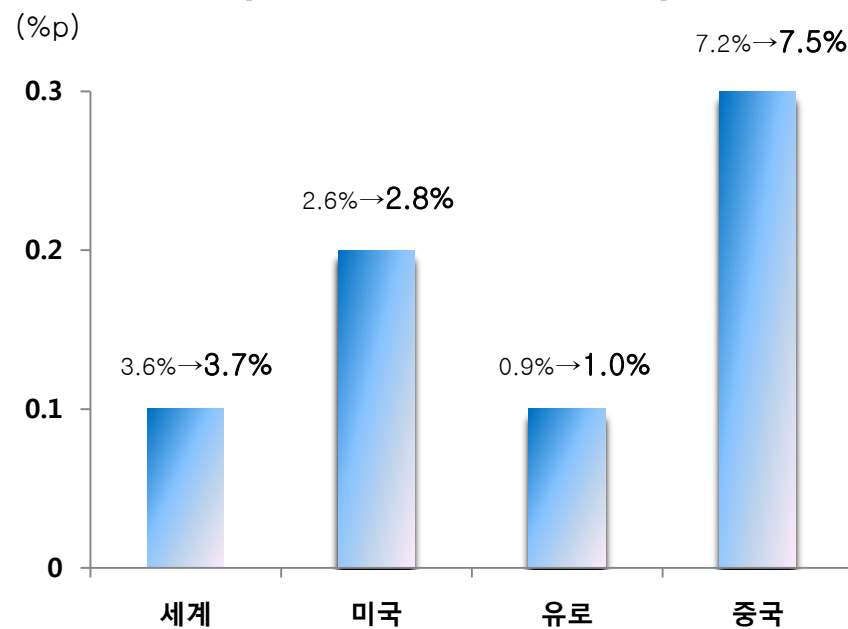
시각 1 – upward path

경제성장률



2014년 성장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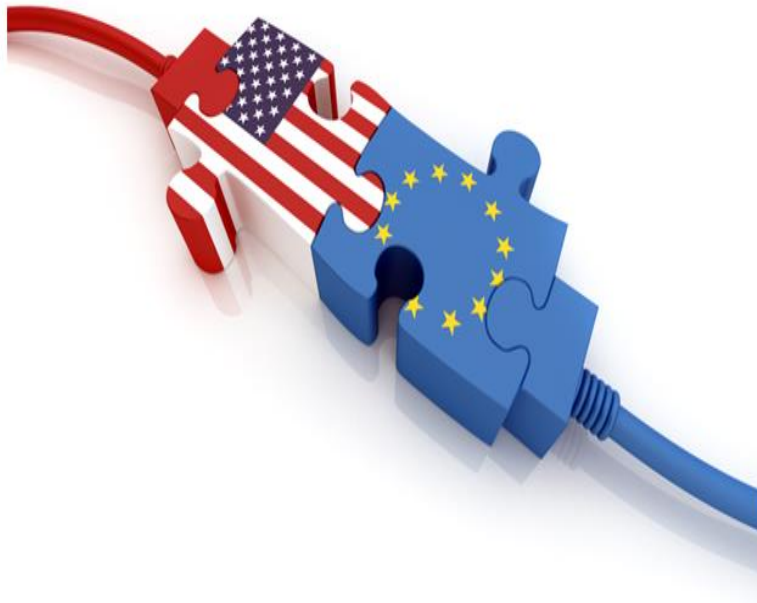
[중전(2013.10월) 전망과의 차이]



※ IMF 2014.1.21일 발표

자료: IMF(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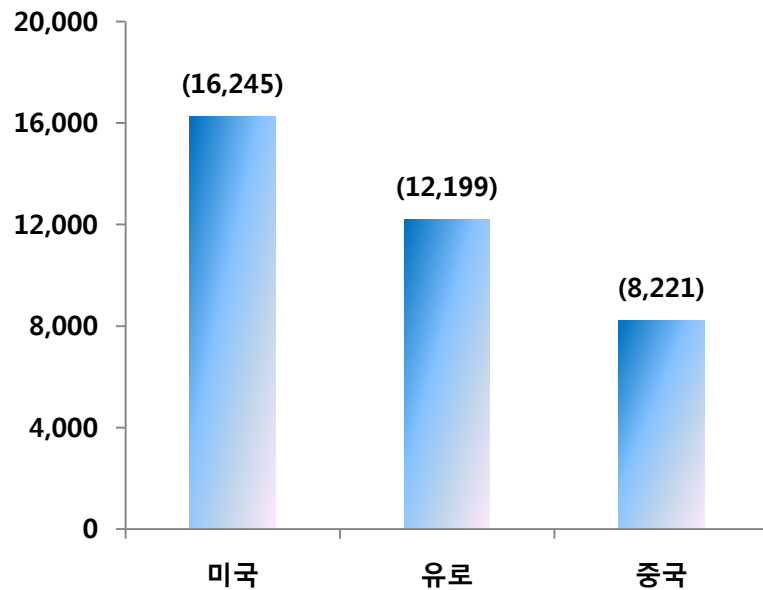
시각 1 – upward path



시각 1 – upward p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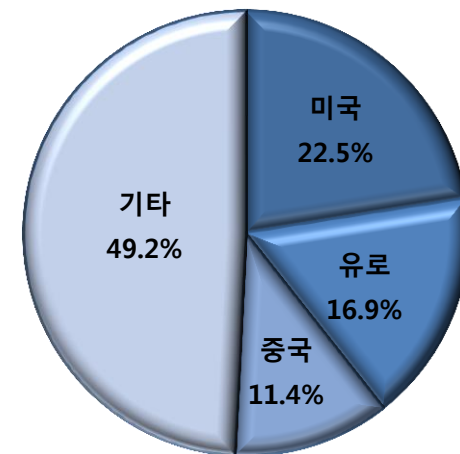
GDP

(USD, Billion)



주: 2012년 기준

GDP 비중



시각 2 – downward p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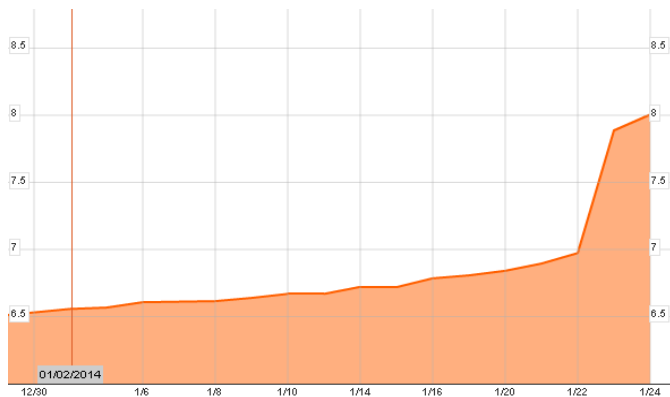
시각 2 – downward path



※ 참고 : 2013.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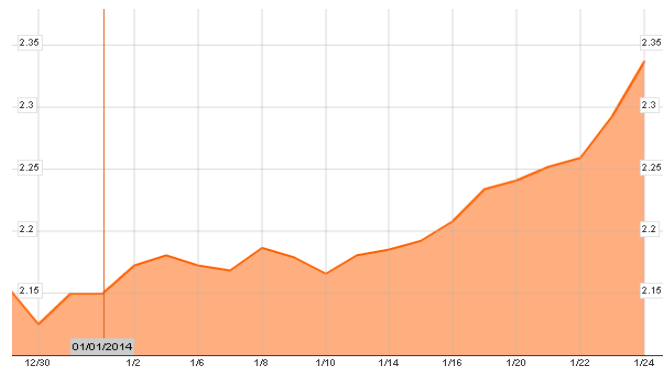
- 1.23일 중국 1월 제조업구매관리지수(PMI) 발표: 49.6
→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0(경기 위축 의미) 미만으로 하락
- 1.29일 개최되는 FOMC에서 추가 테이퍼링 우려

아르헨페소/미달러 환율



페소화 가치 13% 급락
2002년 외환위기 이후 일일 최대 하락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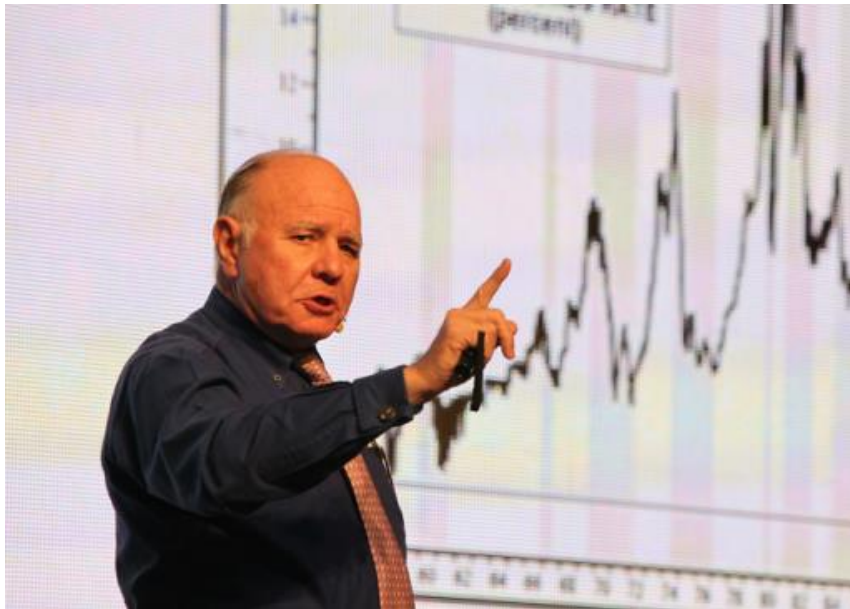
터키리라/미달러 환율



1.24일까지 10일 연속 하락하며
사상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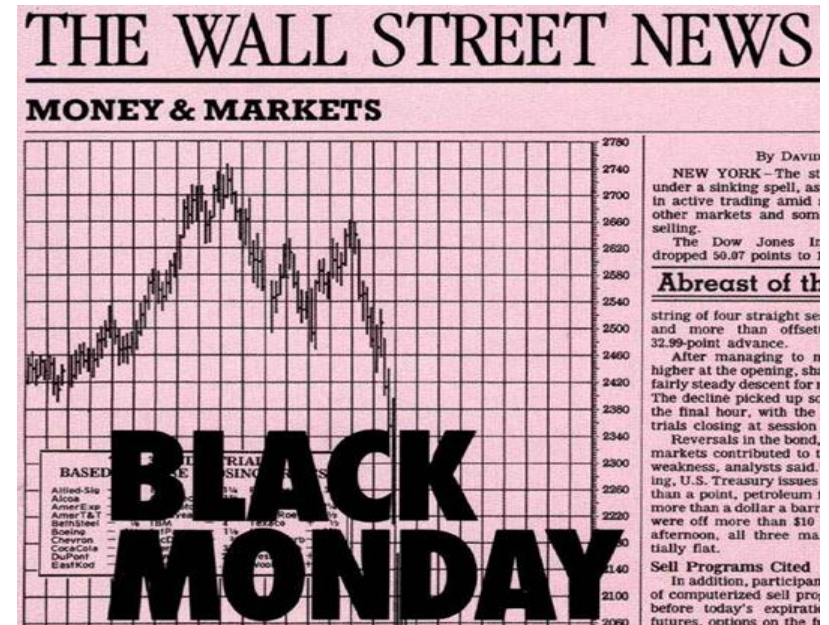
시각 2 – downward path

Dr. Doom의 독심



A 1987-Style crash is coming.
-2013.8.9, CNBC-
we are in a gigantic financial asset bubble. That could burst at any day.

-2014.1.14, Bloomberg-



Dow lost 22.6% of its value or \$500 billion dollars on October 19th 1987 (2,246.74pt→1,738.74pt)

1. 세계경제 : 동향 개관



미국

민간 부문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
양적 완화·재정관련 **불확실성 상존**

신중국

美 QE축소 여파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중국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
성장세 둔화 우려



유럽

7분기 만에 **성장률 (+) 전환**,
고용부진 등이 회복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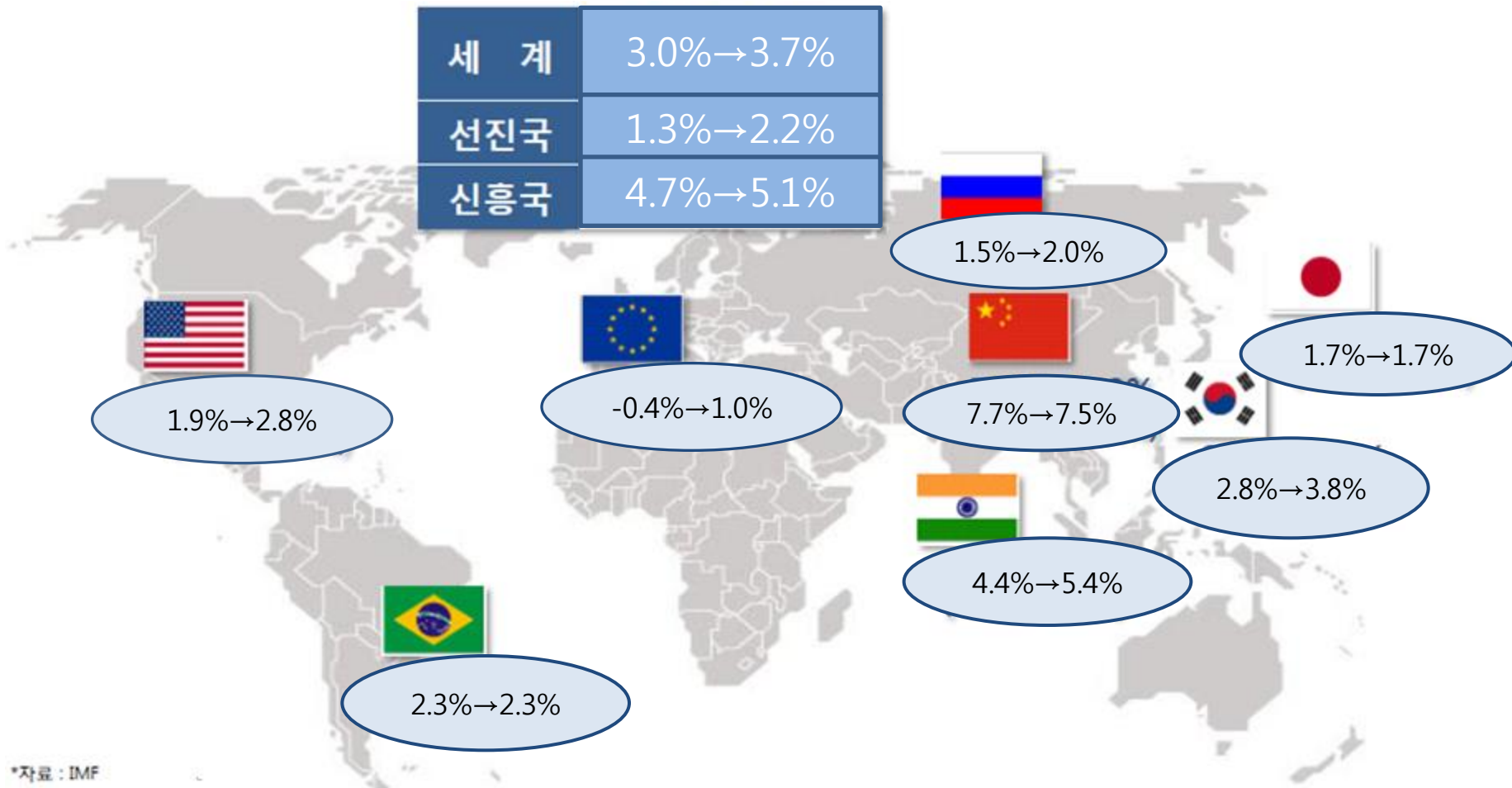


일본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지속
실물경제 **회복세**

1. 세계경제 : 성장을 전망

○ 선진국 주도의 점진적 회복(gradual pick-up) 예상



1. 세계경제 : 개선 vs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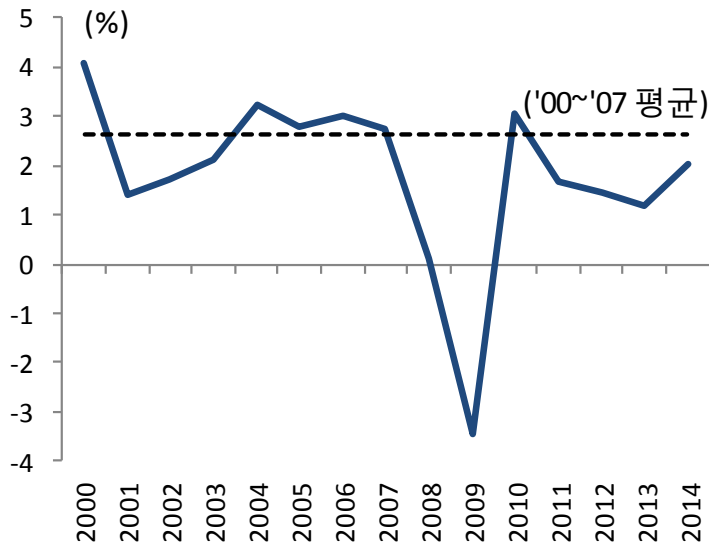
	개선요인	제약요인
미국	주택시장·고용 개선 등 민간부문 회복	통화·재정정책 불확실성
유로존	수출·투자 개선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금융시장 위축 및 민간 디레버리징
일본	아베노믹스 성과 수출·소비 개선	소비세 인상 영향
중국	대외수요 개선 확장적 재정정책	부양책보다 구조개혁 우선
신흥국	대외수요 개선	자체 성장동력 미흡

※ 세계경제 : New Normal 가능성

○ 경기회복 불구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성장세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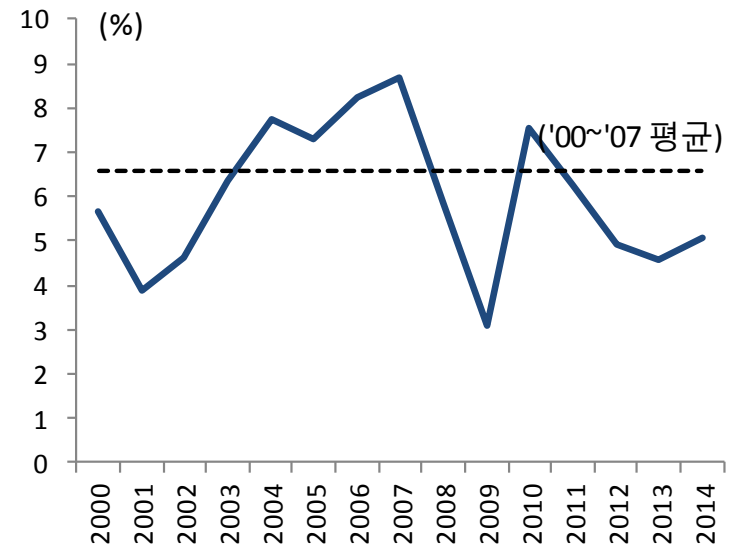
선진국 부채조정, 신흥국 성장 둔화 등으로 더딘 회복세

선진국 GDP 성장을 추이



*자료 : IMF WEO

신흥국 GDP 성장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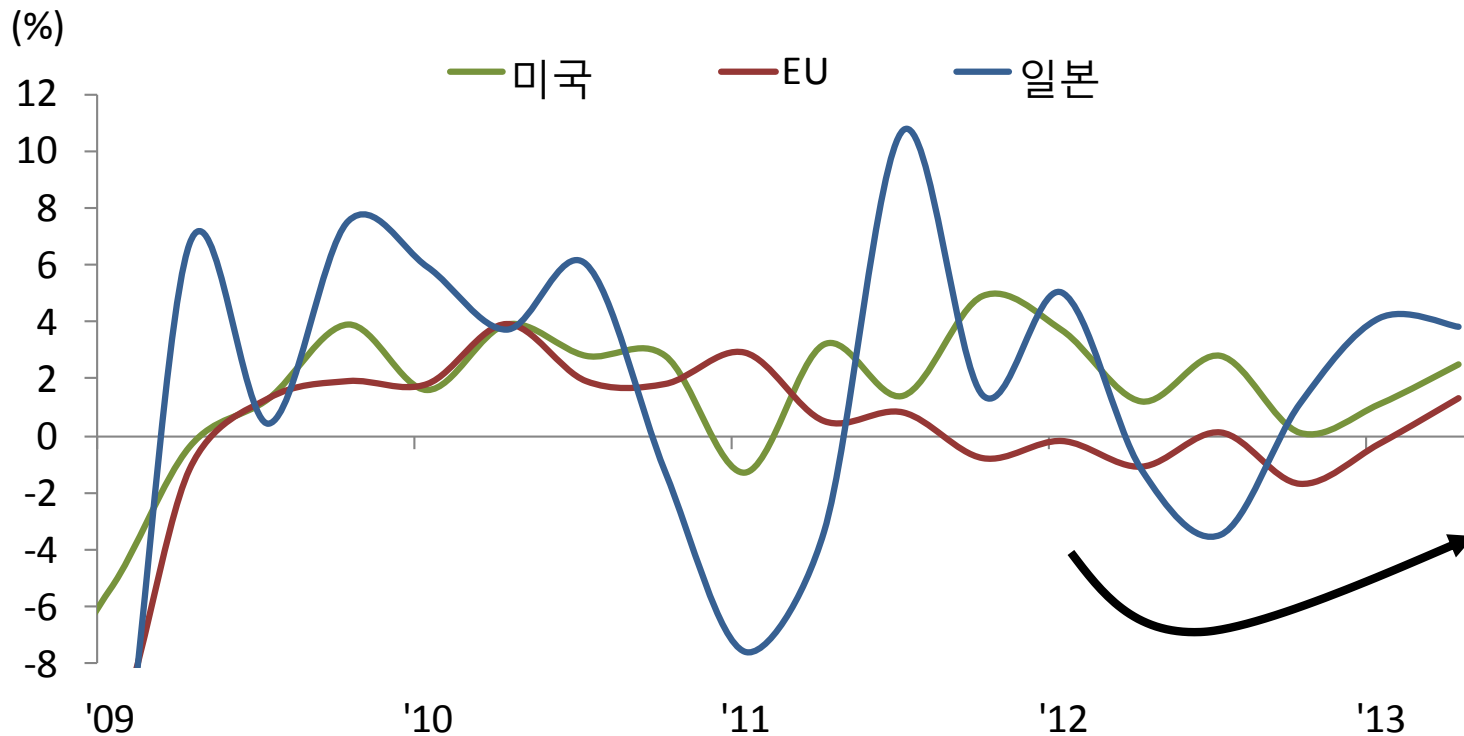


*자료 : IMF WEO

2. 선진국 개관

○ 구조조정 + 경기부양책으로 최근 완만한 회복세

미국, EU, 일본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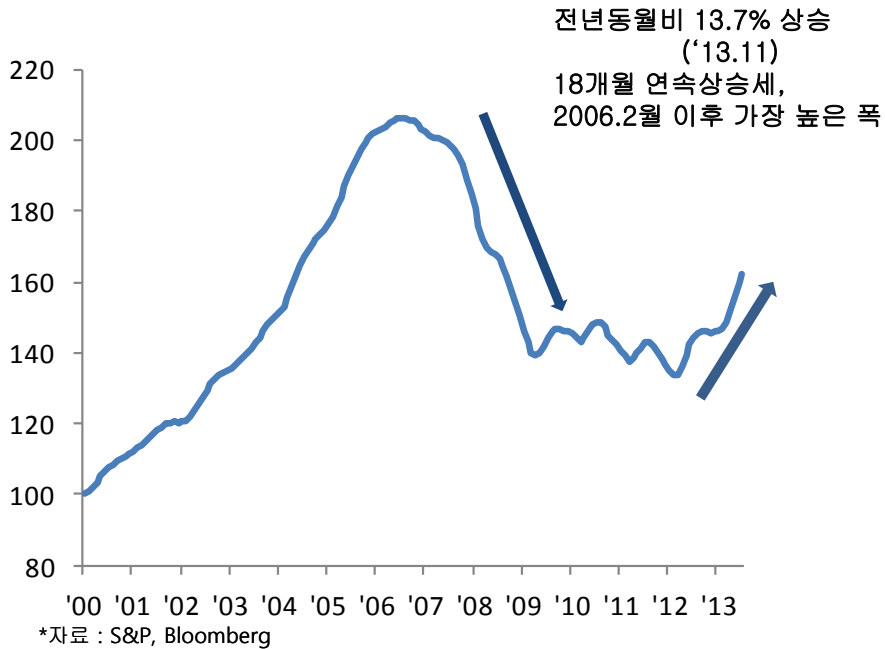
*자료 : KCIF

2. 선진국 : ①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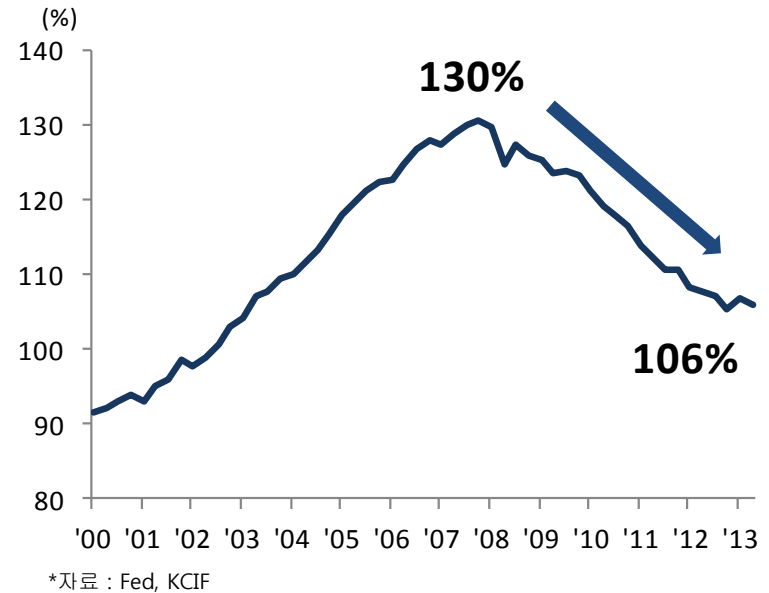
○ 부동산 버블 붕괴 및 가계부채 감축

→ 주택경기 개선, 소비 여력 증가

미국 주택가격지수(Case-Shiller)



미국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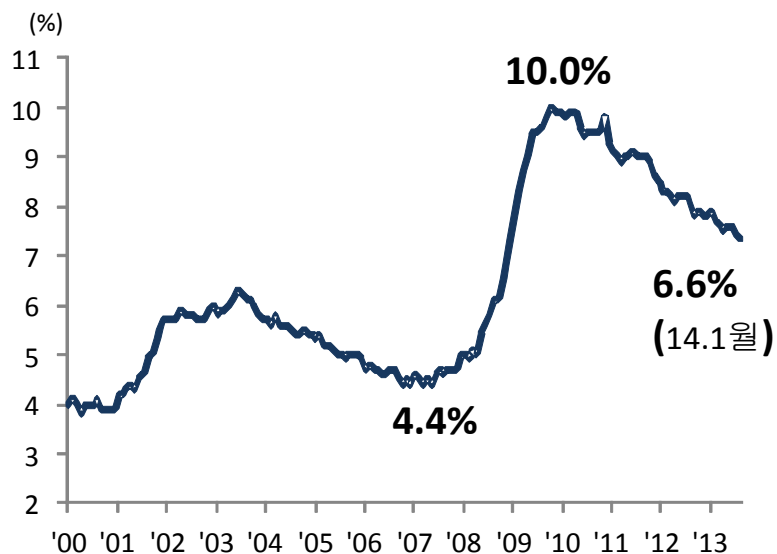


2. 선진국 : ① 미국

○ 실업률 감소 및 기업이익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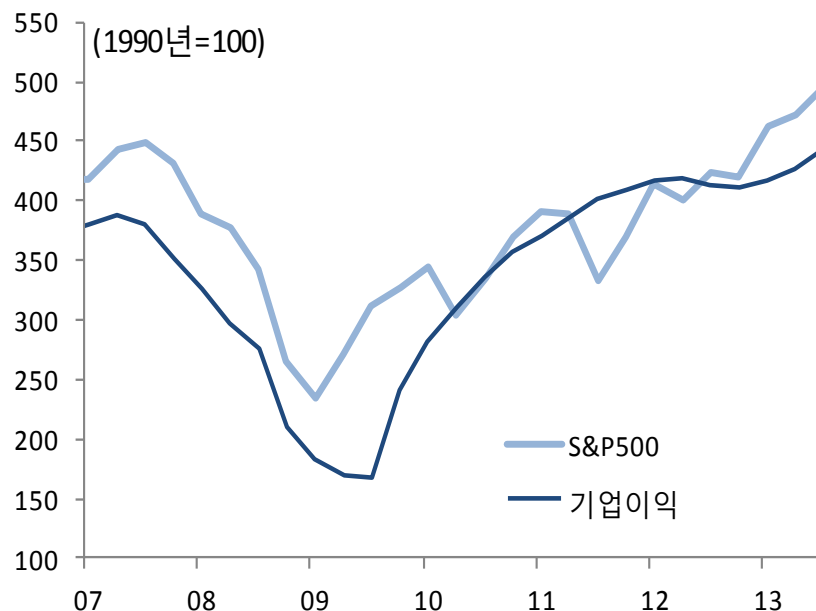
→ 소비 · 투자 증가

미국 실업률



*자료 : 미 노동부, Bloomberg

미국 기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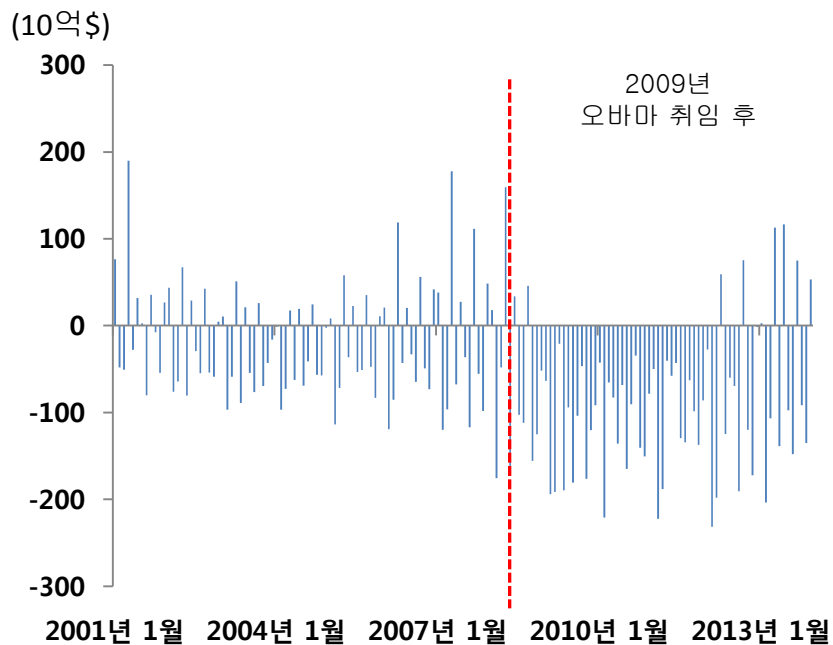


*자료 : S&P, KCIF

2. 선진국 : ①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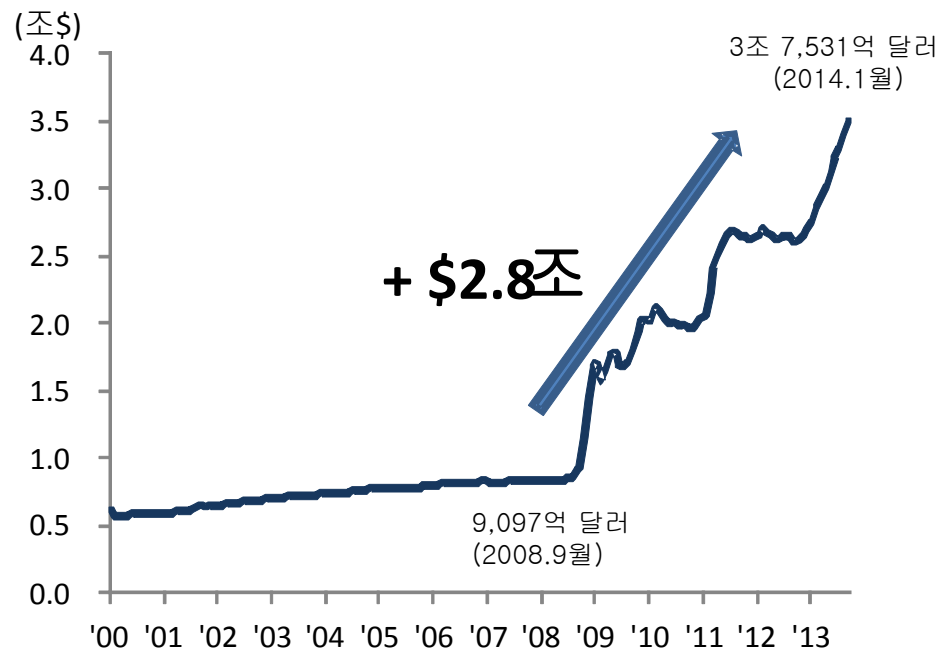
○ 막대한 규모의 재정·금융지원 정책

미국 재정수지



*자료 : 미 재무부, Bloomberg

미국 본원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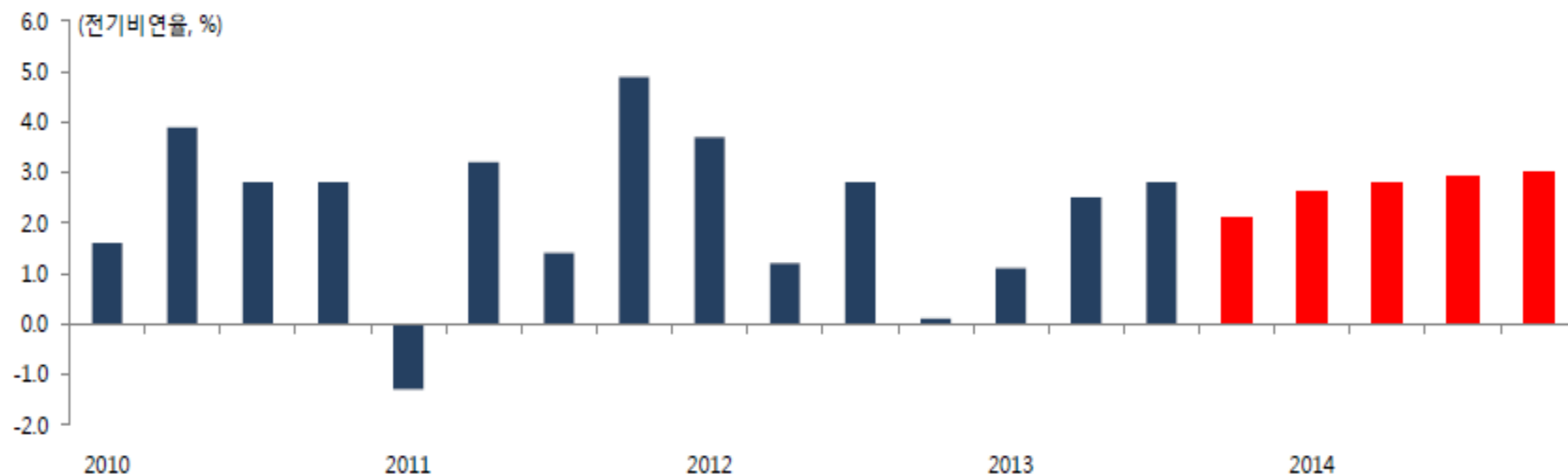


*자료 : Fed, Bloomberg

2. 선진국 : ① 미국

- 2014년 미국 경제는 재정문제 해소로 성장세 회복 기대
- 주요 IB들은 2014년 경제성장률 2.5~3.0%로 전망

미국의 경제성장률 실적 및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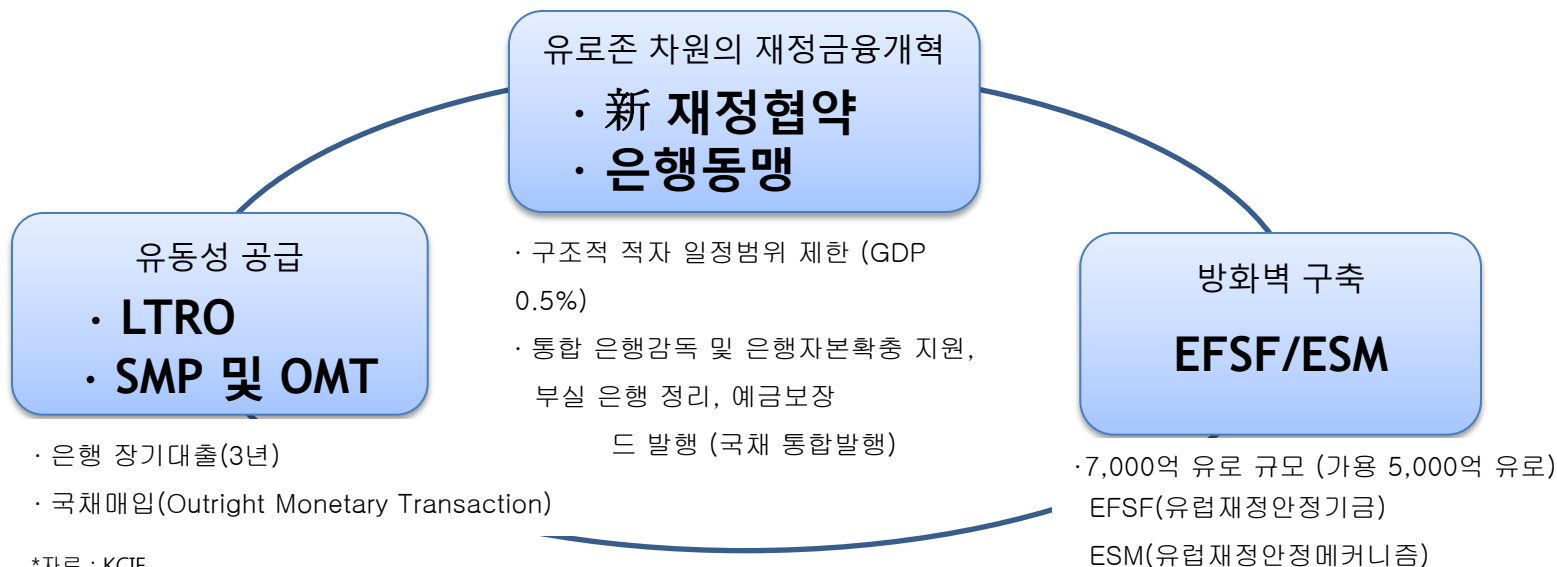
*자료 : 2013년 3/4분기까지 실적, 4/4분기 이후 IB 전망치(Bloomberg)

2. 선진국 : ② 유로존

○ 유로존 붕괴 위험 감소 → 투자·소비심리 개선

- 재정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 → 아일랜드, 스페인에 이어 포르투갈 졸업 임박
- 유럽 중앙은행(ECB) 의 “무제한 국채매입” 계획(OMT) → SMP에서 진화(2차국채매입프로그램)
- 유로존 통합 강화 논의 지속(은행동맹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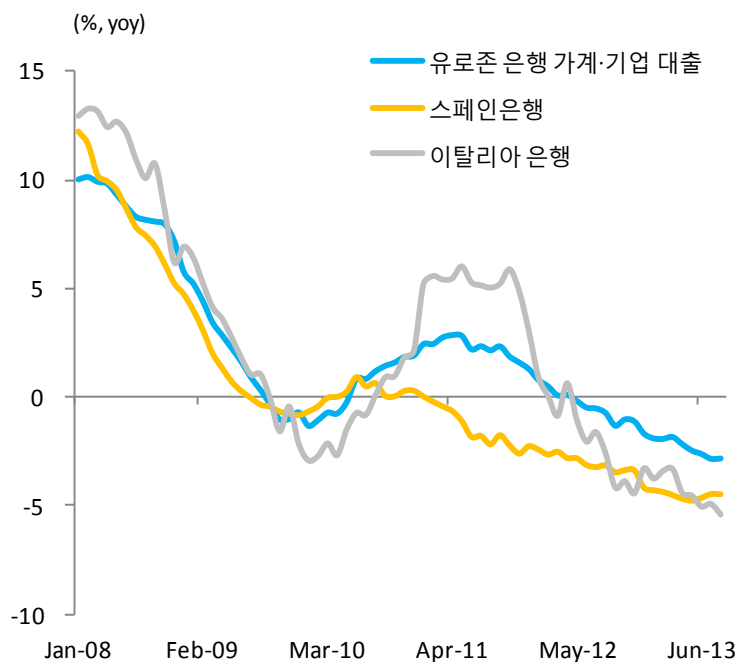
유로존 대응 메커니즘



2. 선진국 : ② 유로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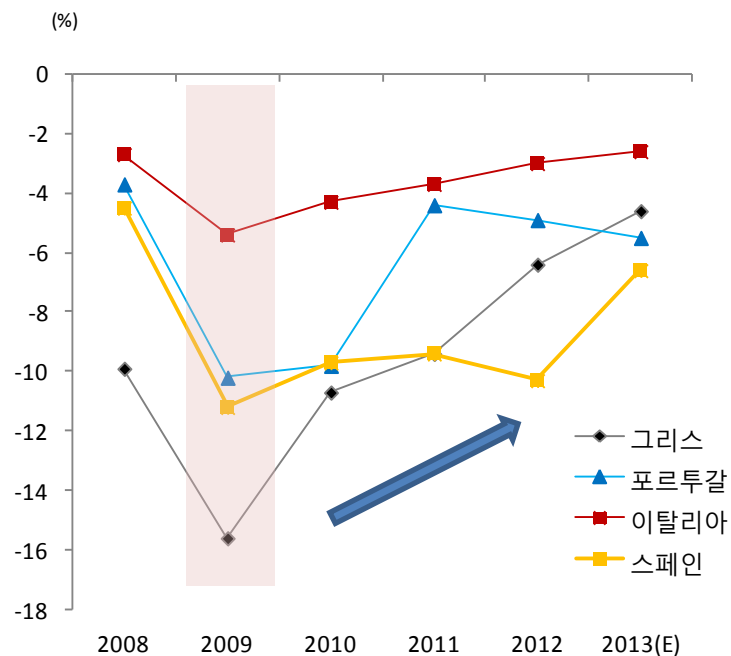
○ 민간부채 감축 및 재정 긴축

재정취약국 대출 추이



*자료 : ECB, Bloomberg

재정취약국 재정수지(GDP대비)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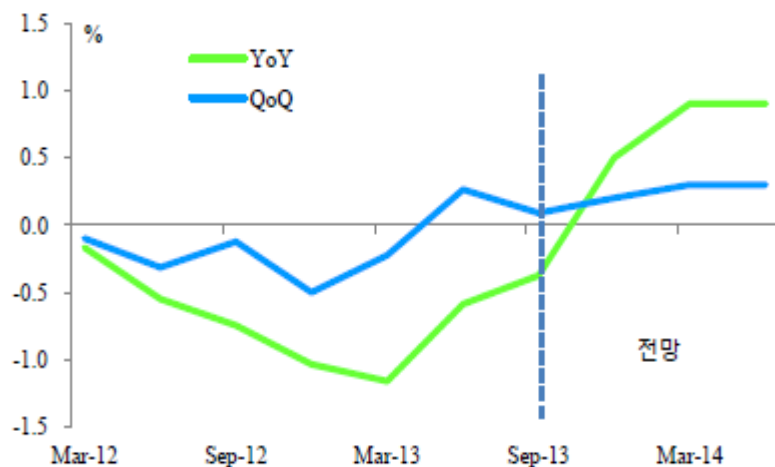
2. 선진국 : ② 유로존

○ 2014년 대부분 국가들 (+) 성장 전환 예상

유로존 전체로 상반기 0.3% 내외, 연간 1.0%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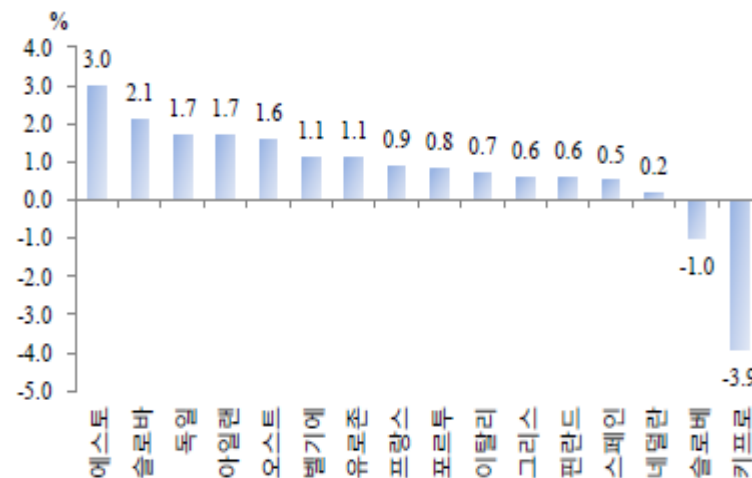
고실업, 내수 부진 등으로 수년간 1.0~1.5% 장기 저성장 가능성

분기 성장률 전망



*자료 : Bloomberg Survey

2014년 국가별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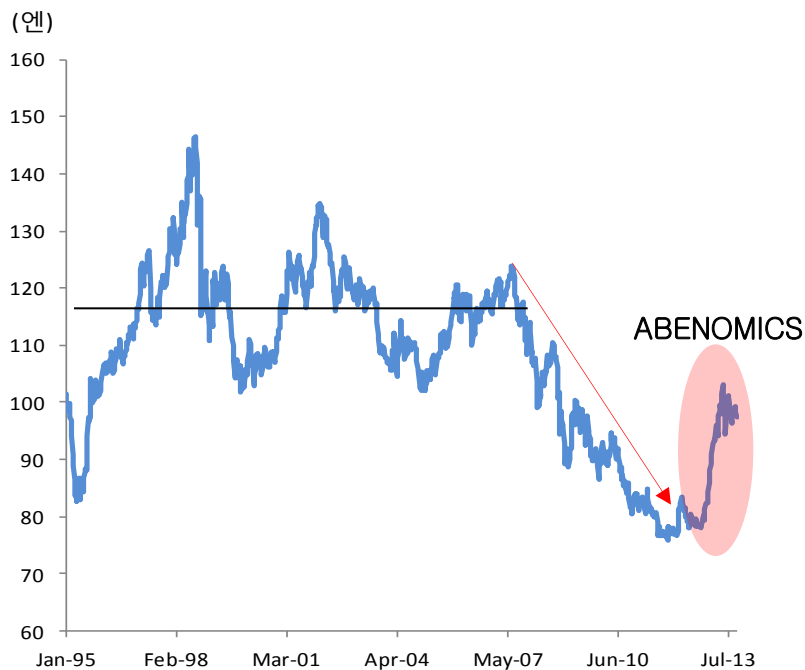


*자료 : EU

2. 선진국 : ③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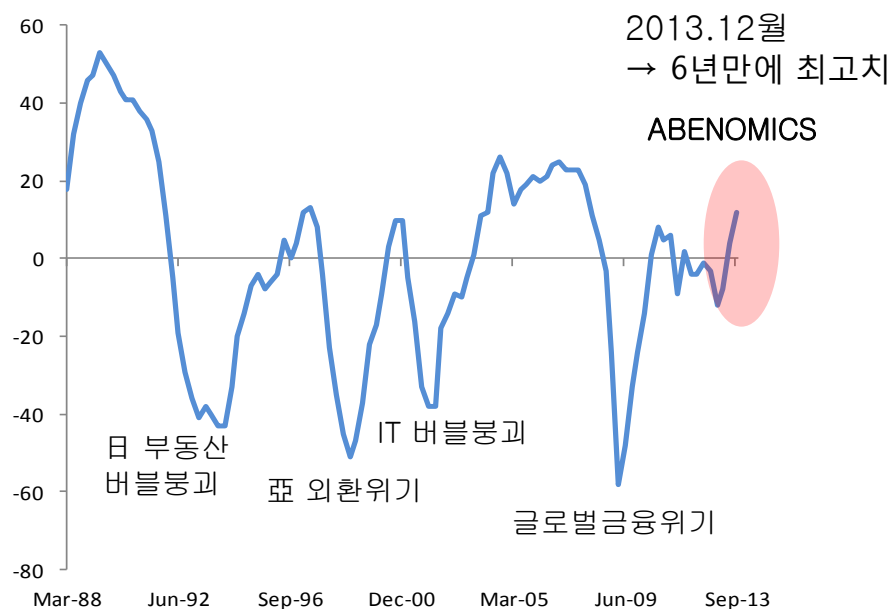
○ ABENOMICS → 과도한 엔고 시정 → 경제심리 개선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日 단칸[企業短期經濟觀測調査]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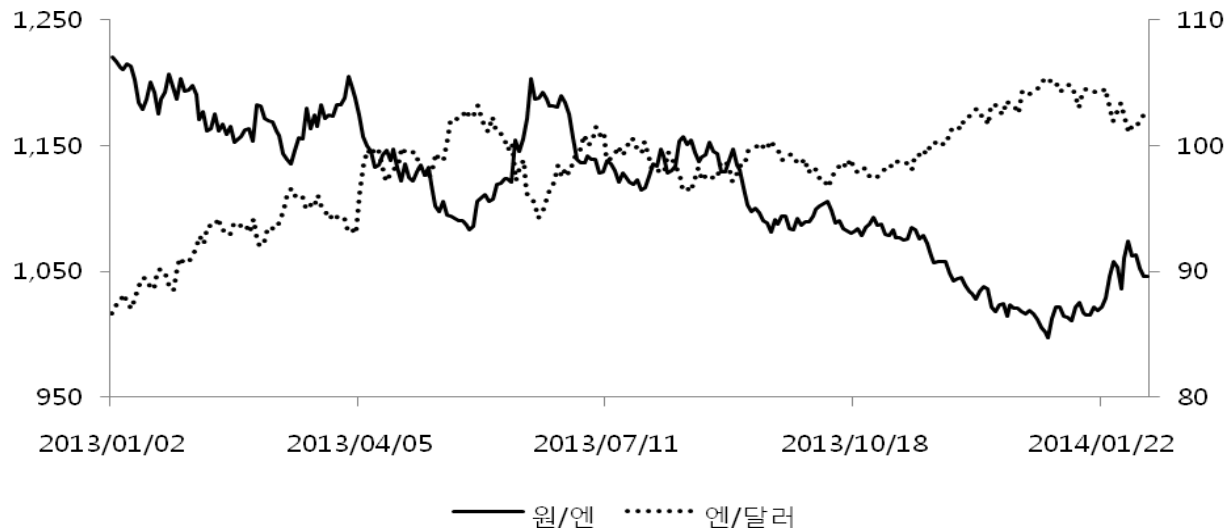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참고 : 최근 엔화환율 동향

○ 신흥국 불안 → 2014. 2월들어 엔화 강세로 반전

- 엔/달러환율 : 10.10월 이후 상승세 → 105.37엔(14.1.2일)까지 상승
→ 101.05엔까지 하락(FOMC 이후)
- 원/엔 환율도 연초대비 4~5% 상승

엔화환율 변동



주 : 원/100엔(좌축), 엔/달러(우축)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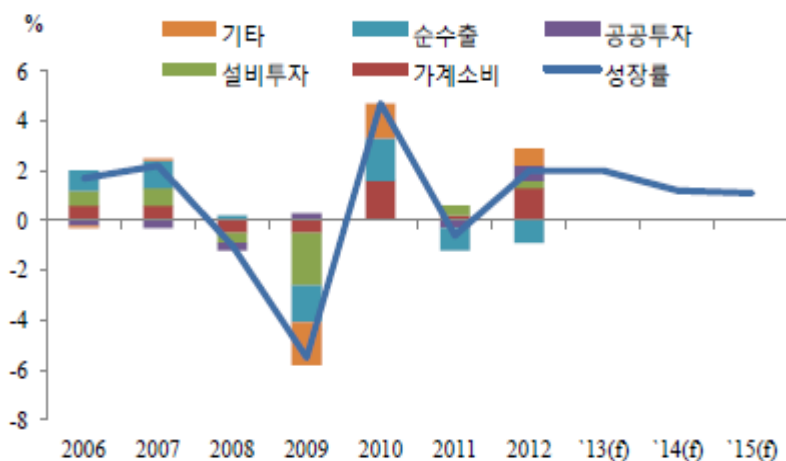
2. 선진국 : ③ 일본

○ 경제성장률은 1.7% 수준으로 전망

2014. 4월 소비세율 인상(5%→8%)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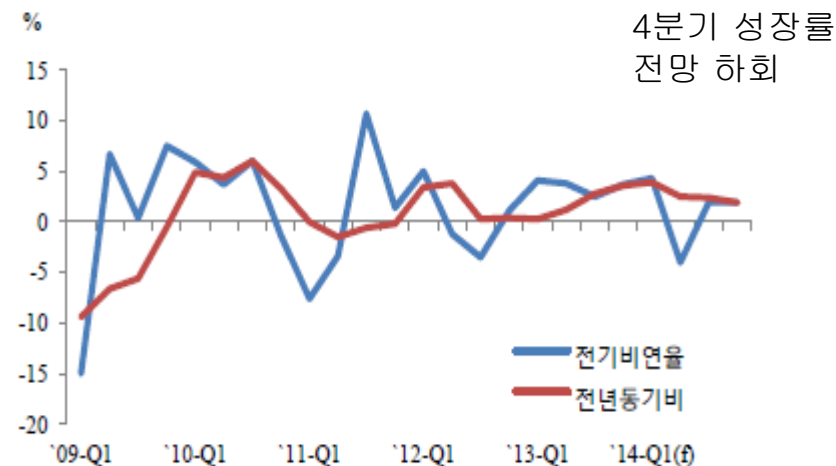
증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이 관건

경제성장률과 기여도



*자료 : 일본 내각부, IMF

분기별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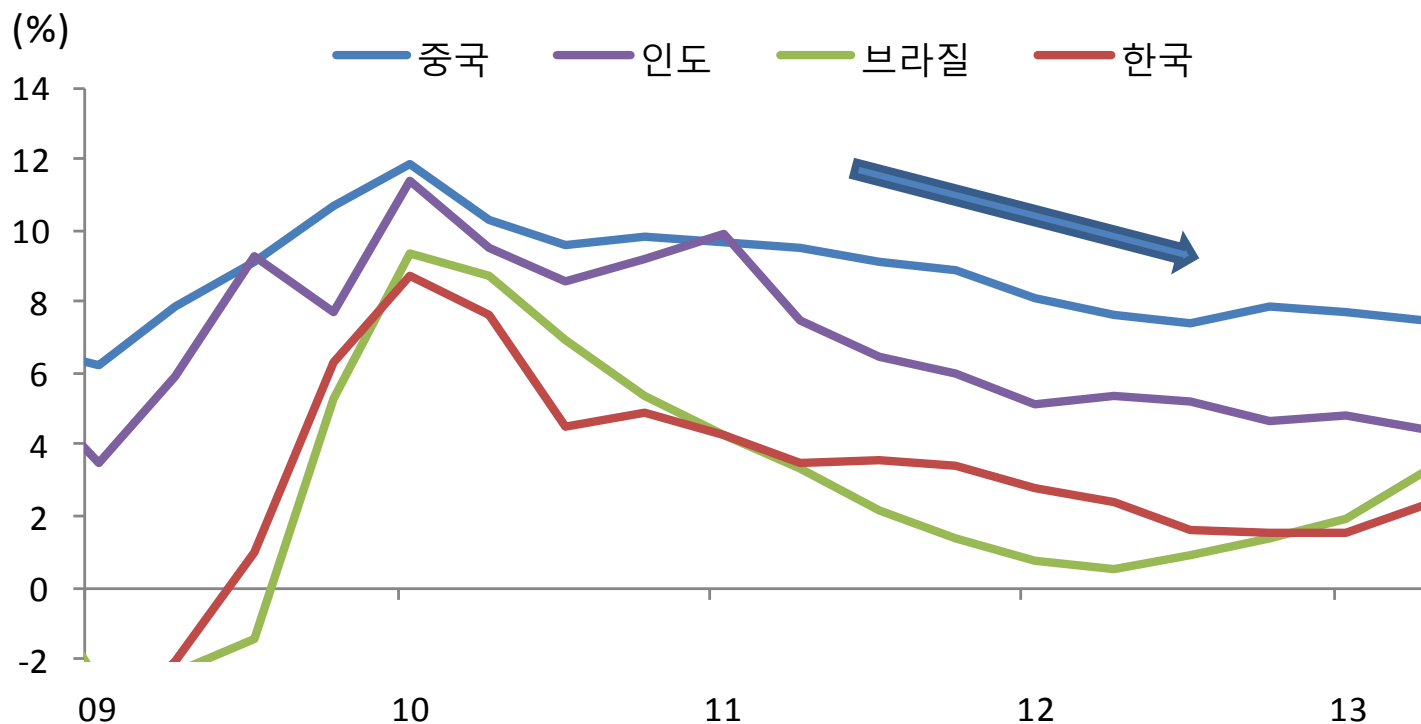


*자료 : 내각부, Bloomberg, 노무라

3. 신흥국 개관

○ 선진국 경제회복 지연 + 내부불균형으로 부진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GDP 성장률(전년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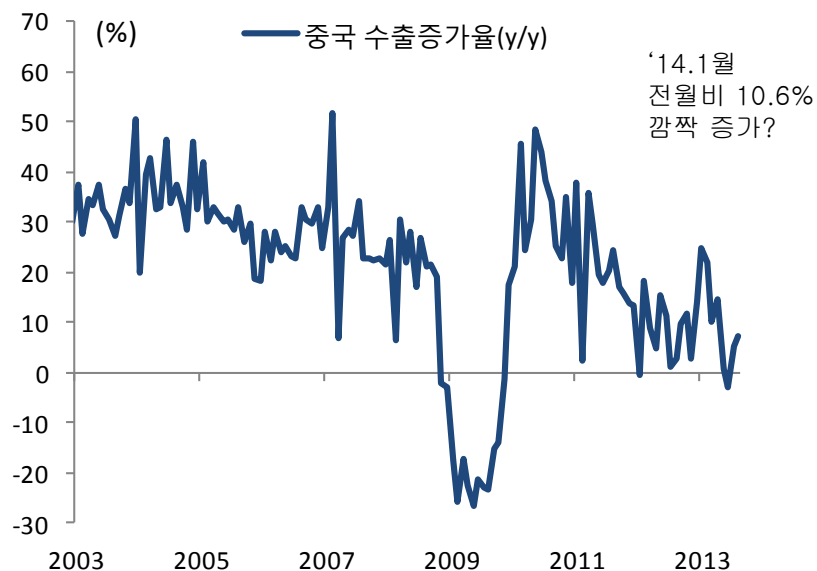
*자료 : KCIF

3. 신흥국 : ① 중국

○ 미국 · 유럽 등 선진국 경기부진 → 수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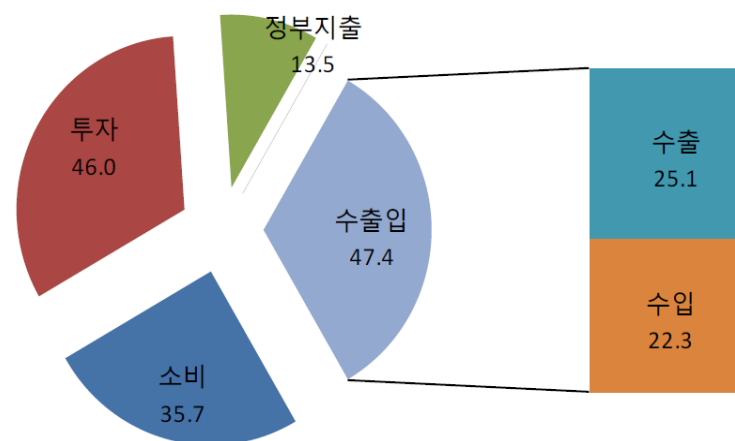
성장 전략 변경(수출 · 투자 → 소비) 및 개혁정책

중국 수출증가율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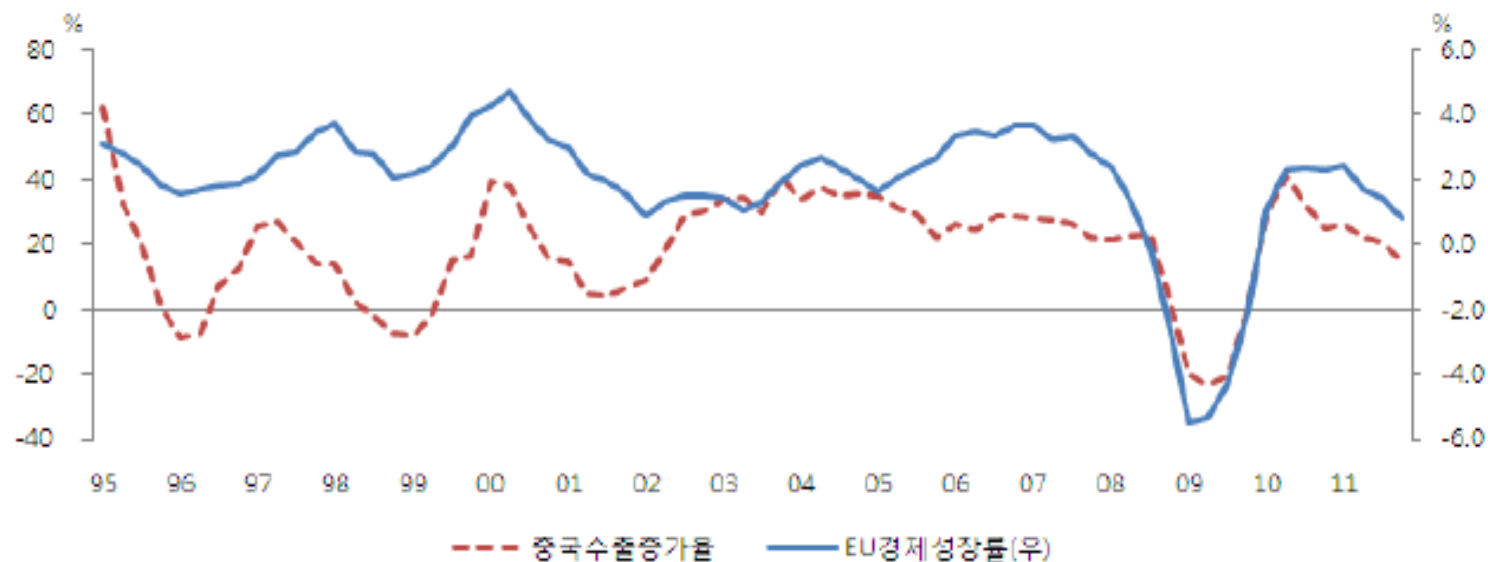
경제부문별 규모(GDP 대비)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 최대 수출지역 : EU

EU 경제성장률과 중국 수출증가율 변화 추이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3. 신흥국 : ①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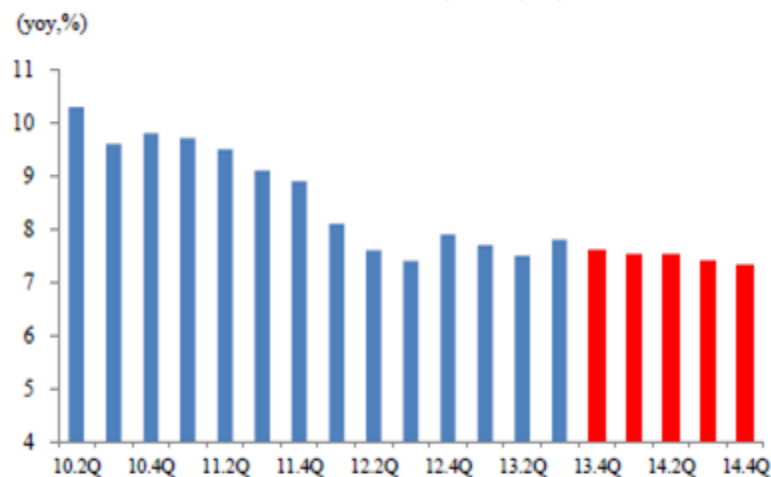
- 내년 경제성장률은 7.5%로 금년(7.7%)에 비해 소폭 둔화 전망
- 대외 수요 회복과 낙후지역 개발정책이 성장을 견인
- 질적 성장 및 빈부격차 축소를 위한 전방위적 개혁 성과 주목

수출주문지수(인프라투자)



*자료 : CEIC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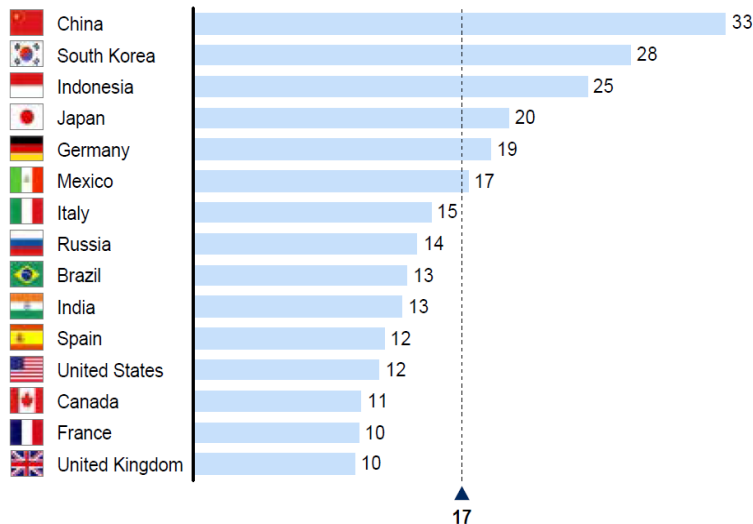
3. 신흥국 : ② 브라질, 인도 등

○ 중국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산업구조 취약(원자재 과다 의존, 제조업 취약, 인프라 미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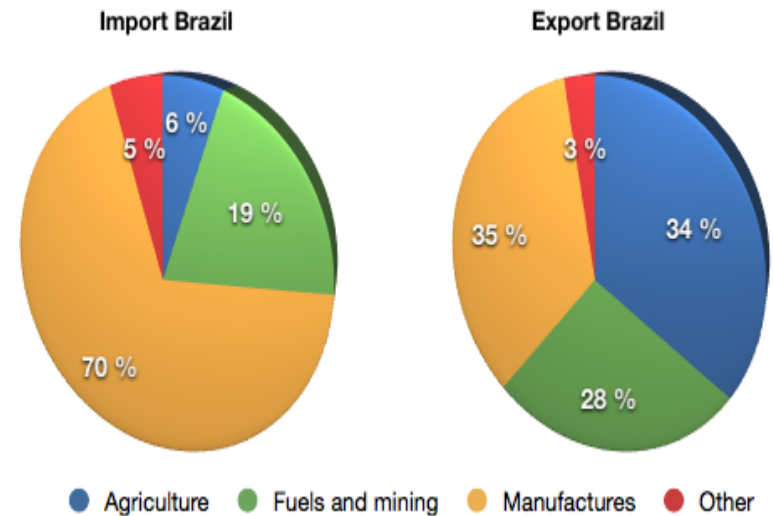
QE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주요국 제조업 비중(GDP 대비 %)



*자료 : 맥킨지

브라질 수입/수출 품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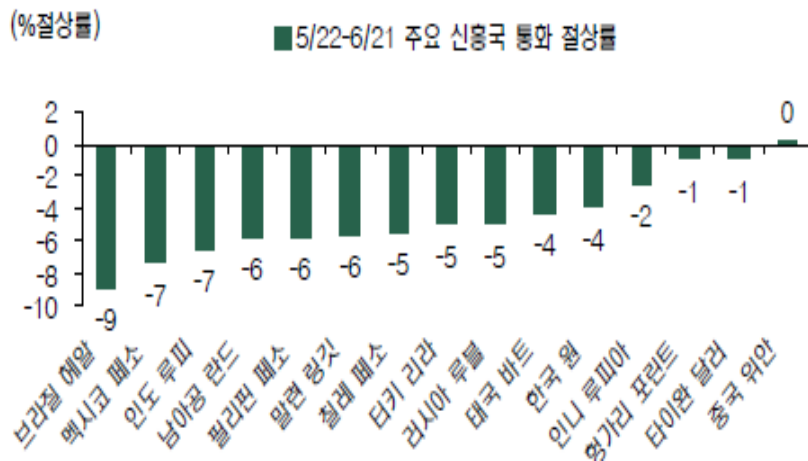


※ 양적완화 축소 발표와 시장 반응

1. 양적완화(QE) 규모 축소 로드맵 제시 (2013.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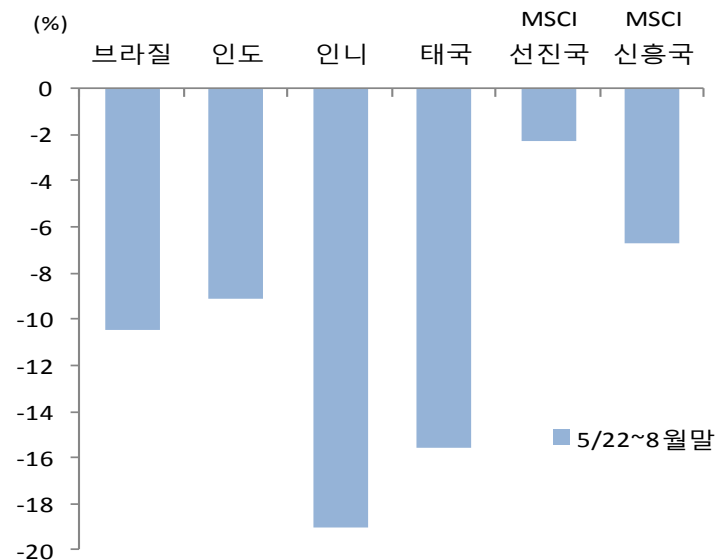
-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개선시 자산매입 속도 완화할 의향
- 2014년 상반기까지 양적완화 규모 축소 지속, 중반 중단

신흥국 통화 절상률



*자료 : Bloomberg

신흥국 주가 등락



*자료 : Bloomberg

※ 양적완화 축소 발표와 시장 반응

2. 양적완화(QE) 규모 축소 결정 (2013.12.18)

- 2014.1월부터 매월 850억달러 → 750억 달러
 - √ 국채 : 450억달러 → 400억달러
 - √ MBS : 400억달러 → 35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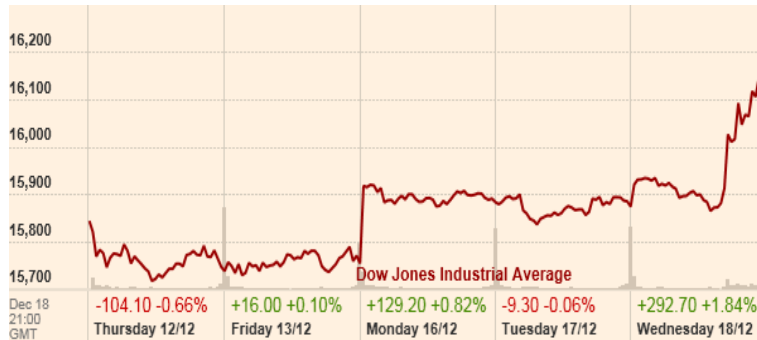
√ 달러 강세



※ 양적완화 축소 발표와 시장 반응

√ 주가 상승

미국 다우지수
15,875.26 → 16,167.97(1.84% ↑)



일본 니케이225 지수
15,587.80 → 15,859.22(1.74% ↑)



√ 미국 채권금리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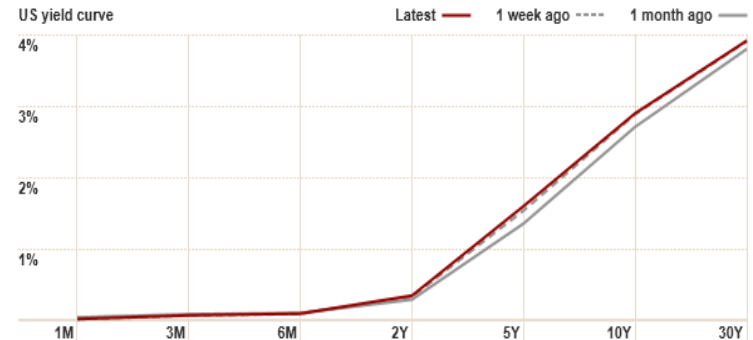
미국 채권금리(10년물 국채)는 0.01%p 상승

2년물: 0.34% (0.01%p ↑)

5년물: 1.60% (0.04%p ↑)

10년물: 2.90% (0.01%p ↑),

30년물: 3.91% (0.01%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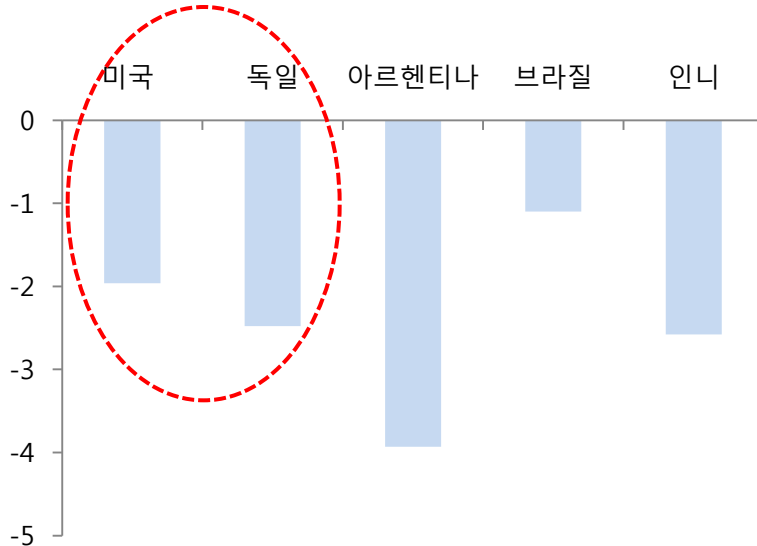
※ 양적완화 축소 발표와 시장 반응

3. 1월 양적완화(QE) 규모 축소 지속 (2014.1.29)

- 100억달러 추가 축소

1월 취업자수 부진은??

글로벌 주가 급락(2013.1.24)



*자료 : Bloomberg

Spill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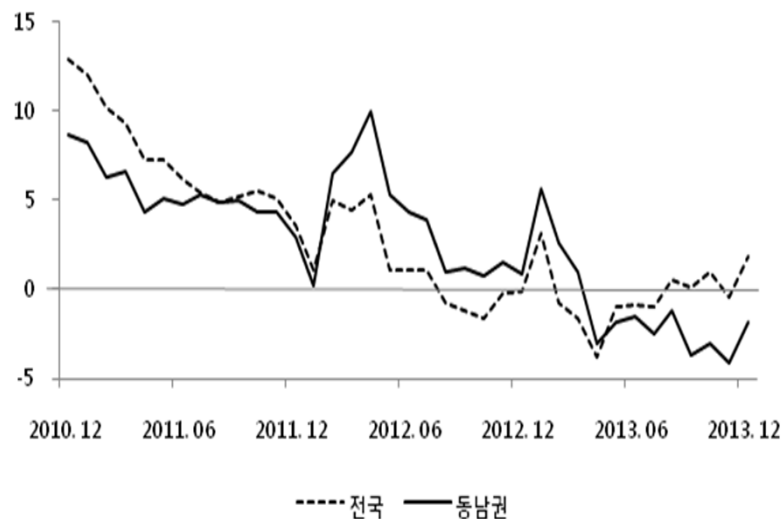
Ⅱ 국내 경제

1. 생산

○ 부진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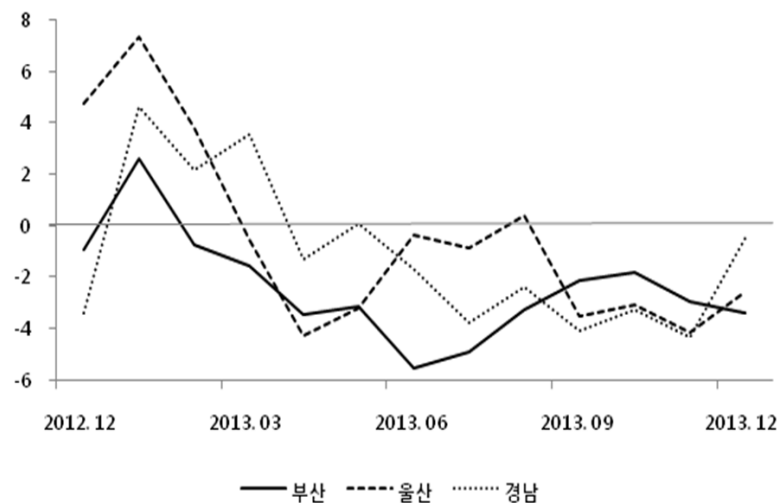
전국은 증가세 전환, 동남권은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전국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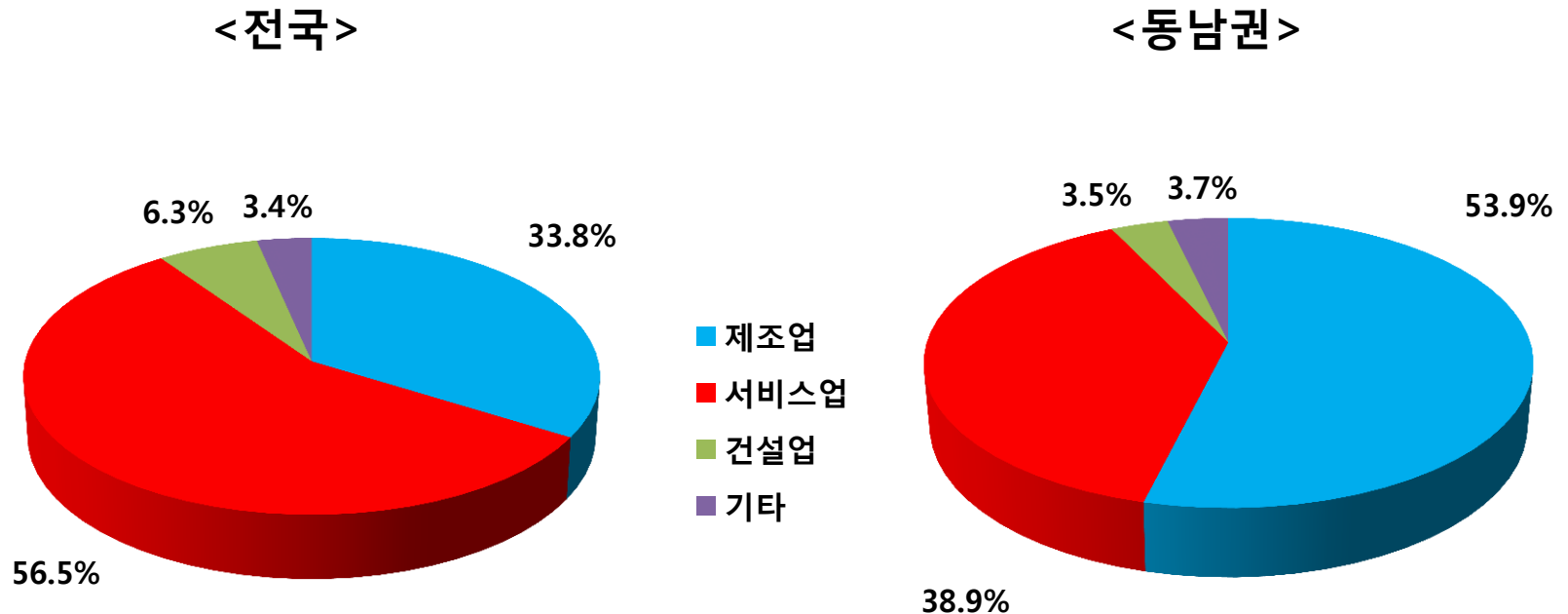
지역별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 참고 : 동남권 산업구조

○ 동남권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주 : 산업별 비중은 매출액 기준, 통계청 경제총조사(2010년)

※ 참고 : 동남권 주력제조업

- 동남권 7대 제조업, 전체 82.4% 비중 차지
조선(19.2%), 석유정제(16.3%), 자동차(13.8%),
철강(9.6%), 기계장비(9.1%), 화학(7.9%), 금속가공(6.5%)

<지역별 주력 제조업 현황>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부산	철강	자동차	금속가공	기계장비	조선
울산	석유정제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경남	조선	기계장비	금속가공	철강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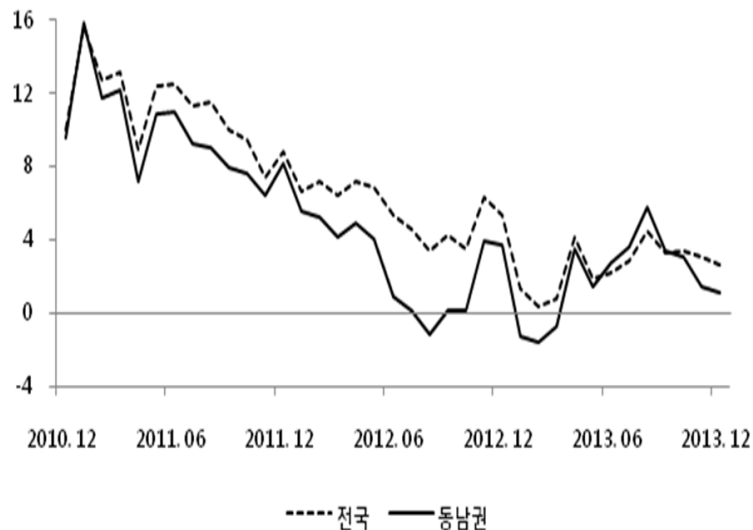
주 : 산업별 매출액 기준, 표준산업분류의 1차금속은 철강, 운송장비는 조선으로 대표

2. 소비

○ 증가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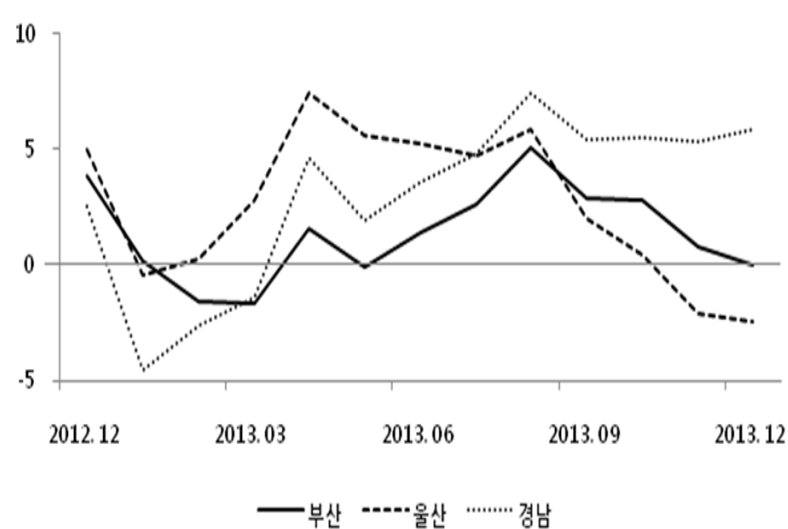
전국 및 동남권 대형소매점 판매 부진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감률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지역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감률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3. 고용

○ 증가세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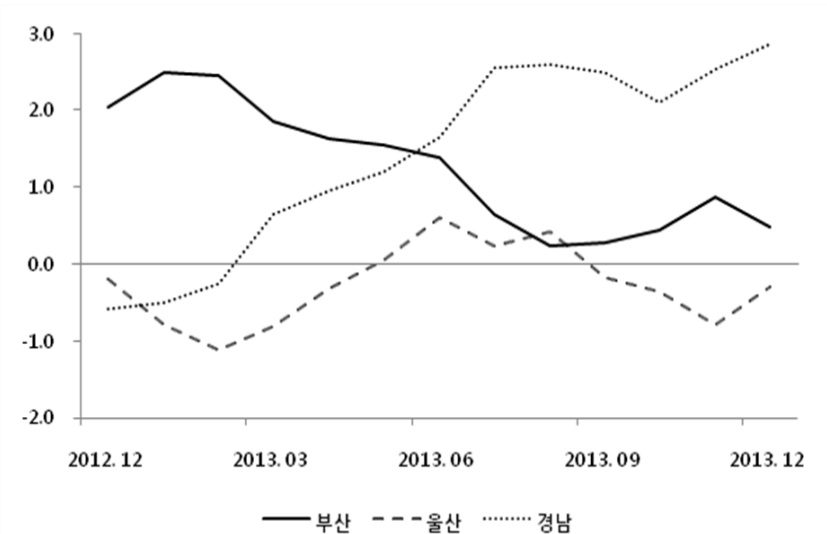
전국은 상승세 지속, 동남권은 전국 수준 하회하며 부진

전국 취업자수 증감률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지역별 취업자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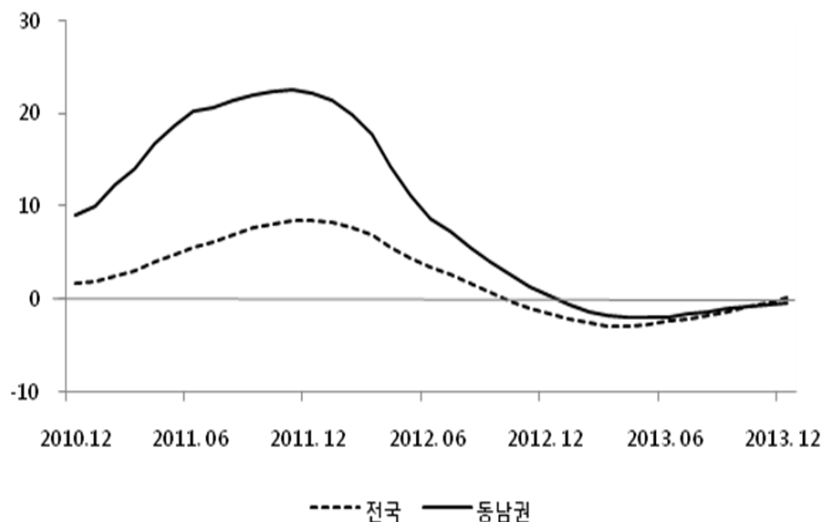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4. 부동산

○ 하락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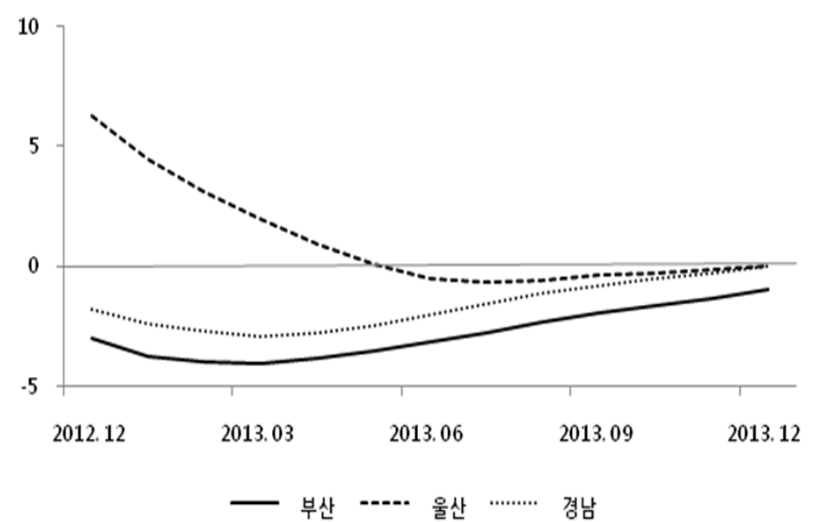
전국은 플러스 성장 전환, 동남권은 보합세 지속

전국 아파트매매가격 증감률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지역별 아파트매매가격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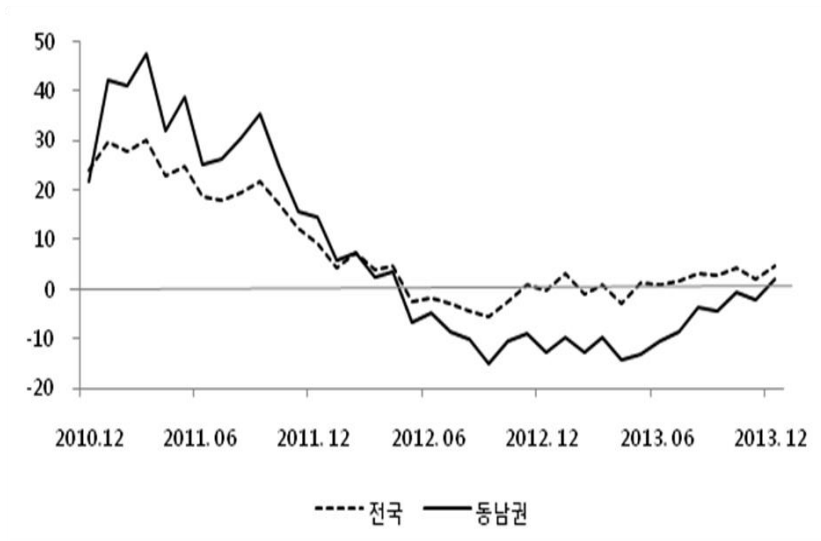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통계청

5. 수출

○ 증가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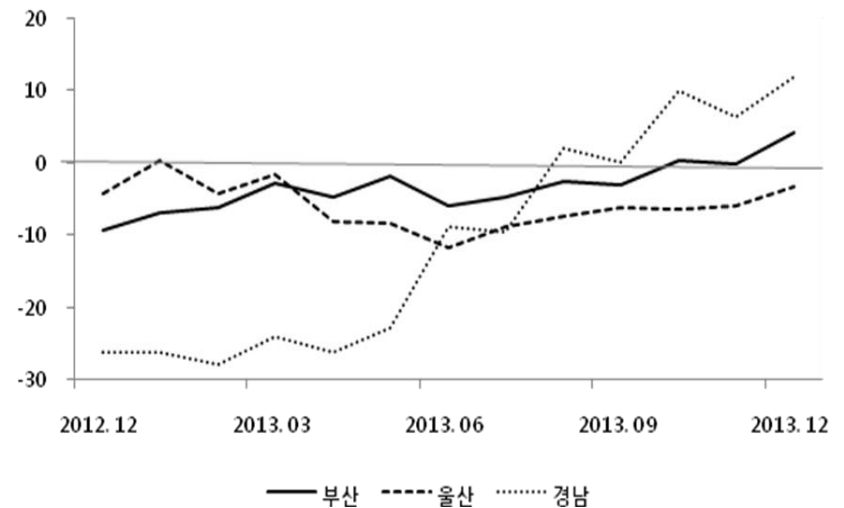
전국 및 동남권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며 개선

전국 수출액 증감률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무역협회

지역별 수출액 증감률



주: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3개월 이동평균
자료: 무역협회

6. 금리

○ 국고채 금리는 등락 반복

회사채 금리는 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하락

주요 시장금리

(기말기준, %, %p)

	10년	11년	12년	13년(A)	14.1월	2.11일(B)	B-A
■ 기준금리	2.50	3.25	2.75	2.50	2.50	2.50	0.00
■ 국고채(3년)	3.38	3.34	2.82	2.86	2.88	2.84	-0.02
■ 통안증권(91일)	2.68	3.51	2.77	2.57	2.59	2.57	0.00
■ 은행채(3개월)	2.83	3.65	2.86	2.65	2.67	2.64	-0.01
■ CD(91일)	2.80	3.55	2.89	2.66	2.65	2.65	-0.01
■ CP(A1, 91일)	3.03	3.71	3.00	2.90	2.83	2.80	-0.10
■ 회사채(3년, AA-)	4.19	4.10	3.30	3.37	3.31	3.27	-0.10
■ 회사채(3년, BBB+)	7.86	7.32	6.39	6.68	6.70	6.66	-0.02

자료: 한국은행

7. 주가

○ 코스피 지수 하락

기업의 실적 부진,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투자심리 위축

코스피 지수 추이

(기말기준)	11년	12년	13.11월	12월	14.1월	2.4일	2.11일
■ 코스피	1,826	1,997	2,045	2,011	1,941	1,887	1,932

자료: 한국은행

○ 외국인 순매도 지속

외국인 순매도 추이

(기간중, 조원)	13.10월	11월	12월	14.1월	2.1~11일
■ 외국인 순매수	+5.1	-0.2	-1.6	-1.2	-1.3

자료: 한국은행

8. 자금흐름

○ 은행 수신은 소폭 증가

자산운용사 수신은 큰 폭 증가

주요 금융기관 수신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2		2013				2014	14.1월말잔액
	연중 ³⁾	1월	연중 ³⁾	1월	11월	12월	1월	
■은행	37.0(42.4)	-10.0	41.0(43.7)	-2.4	7.8	-2.2	1.3	1,178.0
(수시입출식)	22.7	-5.2	27.6	-7.6	8.5	8.0	-2.7	367.7
(정기예금)	20.4	-2.3	-12.4	1.9	-5.6	-7.9	3.7	547.8
(C D)	-7.0	-1.5	0.9	1.4	1.0	-1.1	0.4	24.9
(은행채)	-1.1(4.3)	-1.0	16.5(19.2)	-0.1	3.5	1.2	-0.6	170.2
■자산운용사	18.8	5.7	17.7	15.4	-1.4	-3.8	8.5	343.4
(MMF)	10.0	7.8	3.3	13.8	-1.2	-7.0	6.0	72.4
<법 인>	9.0	7.0	0.5	13.3	-1.1	-6.8	6.0	51.1
(주식형)	-9.7	-1.7	-9.1	-0.7	-1.4	1.4	-1.1	84.4
(채권형)	2.0	0.2	9.2	0.8	0.8	-0.1	0.5	56.6
(혼합형)	-1.0	0.0	3.4	0.1	-1.0	0.6	0.9	33.5
(신종펀드)	17.3	-0.6	10.9	1.5	1.3	1.3	2.2	96.5

자료: 한국은행

9. 기업자금

○ 은행의 기업대출 큰 폭 증가

회사채(공모)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소폭 증가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2		2013				2014	14.1월말 잔액
	연중	1월	연중	1월	11월	12월	1월	
■은행 원화대출	32.9	6.9	34.8	4.7	5.8	-12.7	10.9	634.7
(대 기 업)	27.1	4.9	8.2	1.6	1.5	-7.1	6.4	156.8
(중소기업)	5.8	2.0	26.6	3.1	4.3	-5.6	4.5	477.9
<개인사업자>	15.0	0.5	17.1	0.4	1.8	0.8	0.8	191.3
■사모사채 인수	-2.4	-0.2	-2.1	-0.1	-0.2	-0.2	-0.2	6.8
■회사채순발행	17.5	0.9	3.1	-0.1	0.2	-0.7	0.4	..
■CP순발행	5.4	5.4	1.0	6.6	-3.8	-5.7	2.1	29.8
■주식발행	2.8	0.3	6.5	0.2	0.6	1.0	0.03	..

자료: 한국은행

※ 국내경제 성장을 전망

○ 2014년 국내경제 성장률은 3.8~3.9% 전망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주도의 경기회복 예상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해외 기관	성장률	국내 기관	성장률
IMF (2014.1월)	3.8	한국은행 (2014.1월)	3.8
10대 투자은행 (2014.1월)	3.8	한국개발연구원 (2013.10월)	3.8
OECD (2013.11월)	3.8	기획재정부 (2013.9월)	3.9

주 : ()내는 전망치 발표시기, 최근 발표 순으로 정리

III 주요 이슈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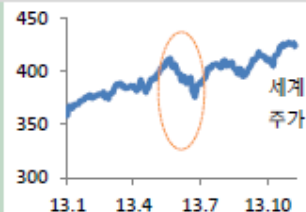
1. 세계경제



미국 출구전략

내년 상반기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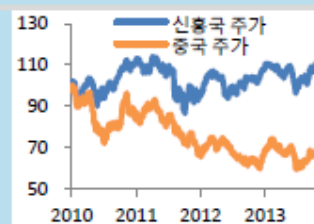
- 주가 조정,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등 국제금융시장 전반에 영향
- 금년 2분기 같은 시장충격 재연 가능 ('13.5~6월 세계주가 9% 하락)



중국 리스크

내년 중 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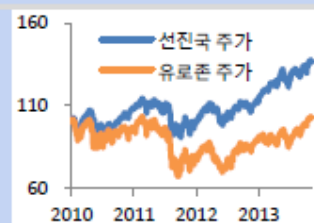
- 개혁부진 또는 개혁에 따른 저성장
- 특히 아시아, 원자재 생산국 등 신흥국에 영향력 큼



유로존 위기 재연

내년 중 수시

- 유로존 개선 시각의 되돌림현상 및 금융불안 증대



아베노믹스 후폭풍

내년 중 수시

- 아베노믹스 부작용 또는 성과 부진시 시장 변동성 심화



1. 세계경제 : ① 미국 출구전략

○ 5년간 3단계에 걸쳐 풀었던 유동성 축소 시작

QE 축소 결정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고용지표 관건이나,
올해 2월에는 지표 부진에도 추가 테이퍼링 예상

Fed의 Balance Sheet 변화 추이



*자료 : KCIF

1. 세계경제 : ② 중국 개혁정책

- 시진핑 지도부 출범 2년차, 경제구조 개혁 강화 예상
질적성장 및 빈부격차 축소를 위한 전방위적 개혁이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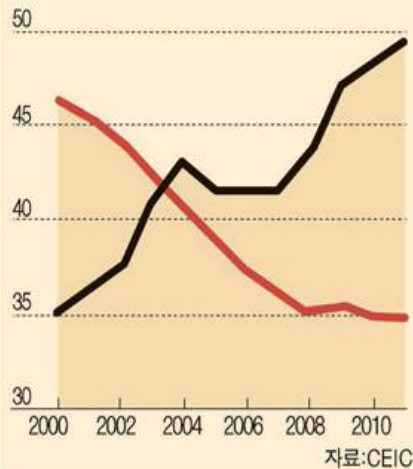
强 대국에서 강국으로

늘어나는 중국의 국방예산
단위:억 위안



轉 투자에서 소비로

지금까진 투자가 소비 추월
단위:%, GDP서 차지하는 투자와 소비 비율
— 총투자 — 가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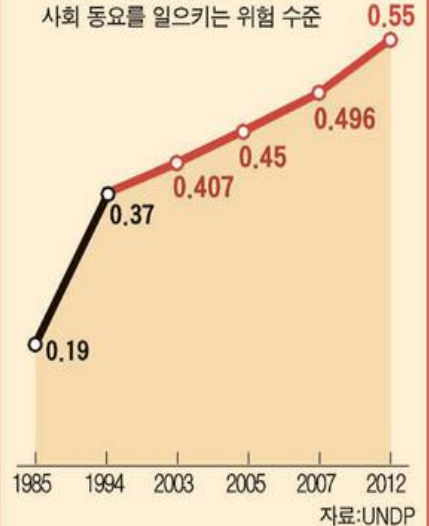
正 부패와의 전쟁

해외 도피 부정부패 공직자 검거 수
단위:명



平 기득권 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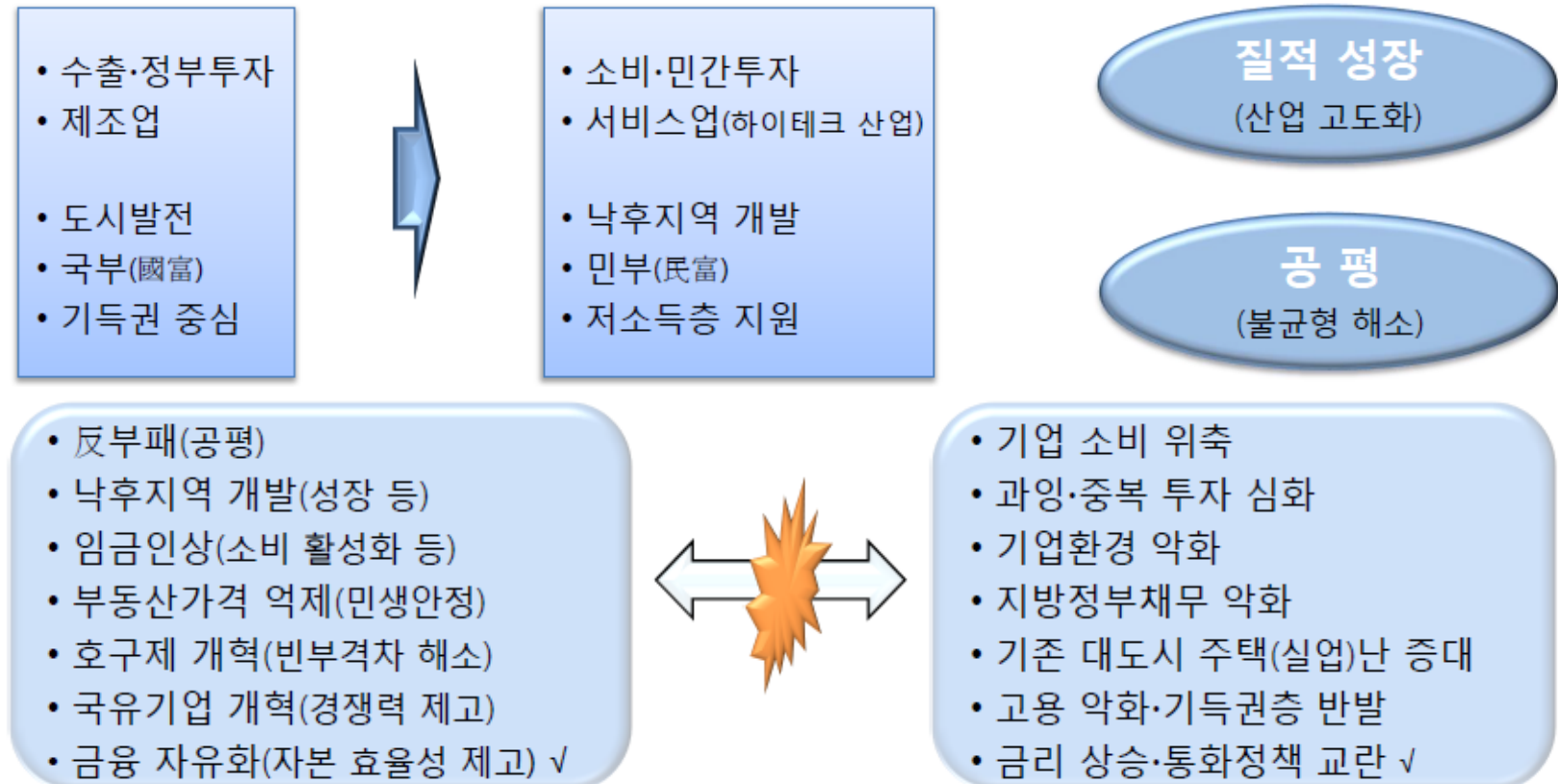
상승하는 중국의 지니계수
※소득 불평등 지표로 0.4 이상이면
사회 동요를 일으키는 위험 수준



1. 세계경제 : ② 중국 개혁정책

○ 개혁정책의 딜레마와 부작용 ?

중장기 개혁정책과 단기 성장간 상충 위험 상존



1. 세계경제 : ② 중국 개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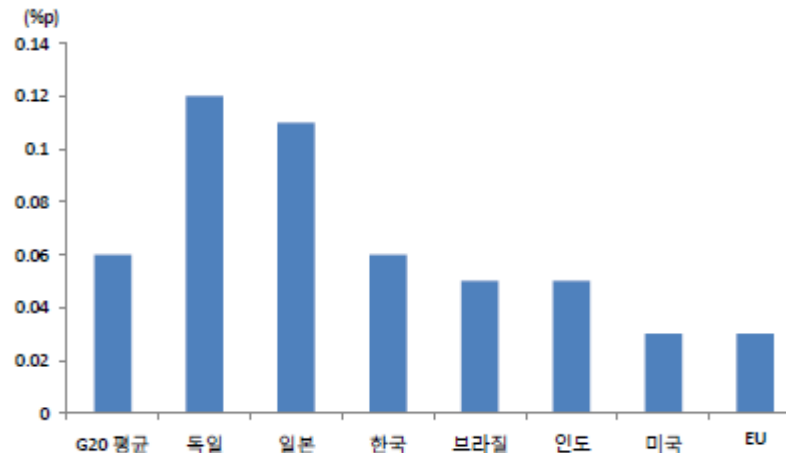
○ 세계경제 파급 영향 ?

중국 구조개혁에 따른 수축과 미국의 QE 축소 효과 동시 발생시,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逆시너지 우려

* UN, 중국의 전세계 성장기여율 40% 추정

* IMF, 중국 투자 1%p 감소 → G20 성장률 0.06%p 하락 전망

중국 투자 위축시, 주요국 성장 하락폭



*자료 : IMF, 중국 투자증가율 1%p 하락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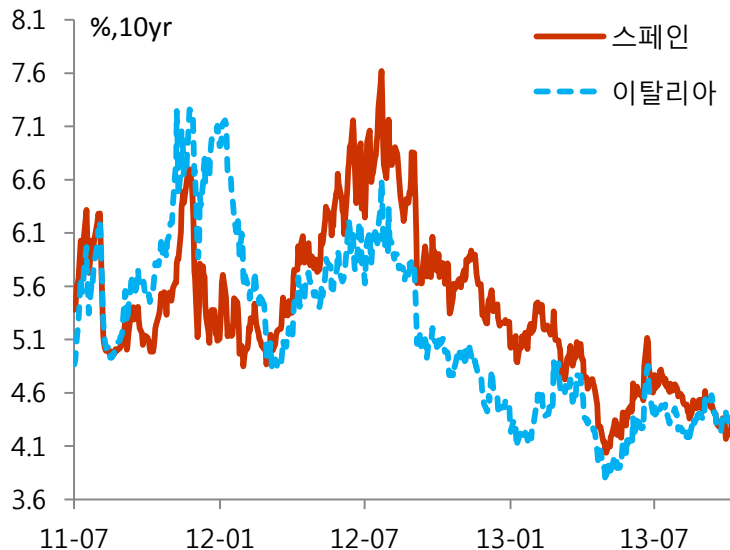
1. 세계경제 : ③ 유로존 향방

○ 재정위기 우려 완화

OMT 선언 후 외국인 채권투자 지속, 국채금리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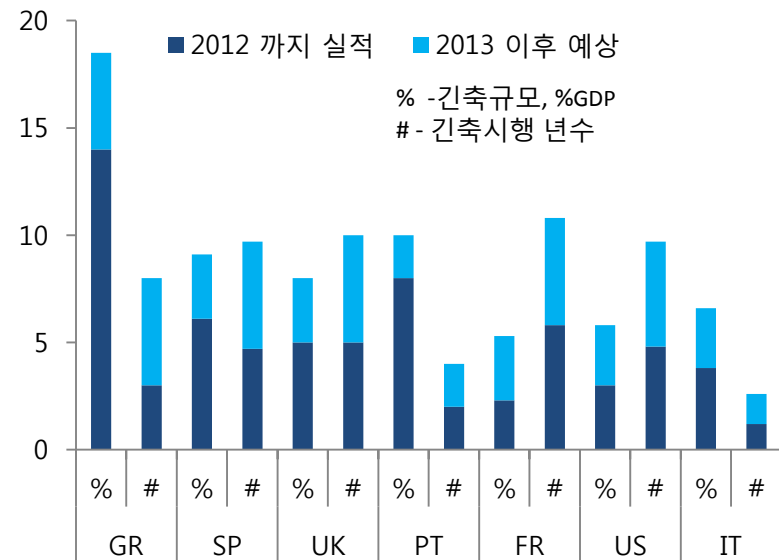
트로이카 요구에 못 미치나 위기국 재정적자 점진적으로 감축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재정긴축 규모와 기간



*자료 : EU, Citi

1. 세계경제 : ③ 유로존 향방

○ 위기 재발 가능성 ?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 정책 동조화로 재정위기 재연 우려 감소
저성장 및 고실업에 따른 경기회복의 지속성 저하 가능성
은행동맹 미완성, 재정통합 미실현 상태로 고착, 장기화될 우려



1. 세계경제 : ④ 아베노믹스 명암

○ 3개의 화살(금융정책, 재정정책, 구조조정) 중 2개 발사



1. 세계경제 : ④ 아베노믹스 명암

○ 일본경제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성공시 일본경제 디플레 탈피,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

실패시 일본경제 재정위기 직면, 세계교역 감소 및 투자 위축 초래

	성공시	실패시
일본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플레 탈피로 경제성장에 기여 • 경기부양책 불필요로 재정 개선 • 기업경쟁력 회복, 국제수지 개선 • 해외자금 유입으로 트리플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플레 지속으로 경기회복 저해 • 재정악화, 정부 채무 증가 • 산업공동화로 국제수지 악화 • 자금 유출로 트리플 하락
세계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수입 증가로 세계교역 확대 • 일본 경제성장에 따른 수혜 위해 대일본 투자 증가 • 일본 투자여력 증대, 해외투자 증가 • 일본인 해외 여행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수입수요 감소로 교역 위축 • 일본 해외투자자금 회수, 외국인 자금의 일본 이탈 • 세계적 투자심리 위축 • 일본인 해외 여행객 감소

2. 국내경제 : ① 가계부채

가계대출 6개월째 사상 최대

전달보다 4조 늘어 676조

10월 중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4조원가량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 기록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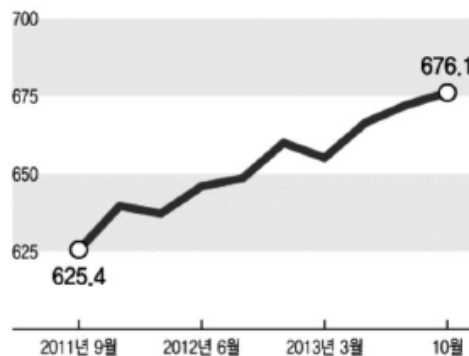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10월 말 현재 전체 잔액이 676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원 늘었다. 월간 증가액이 9월(1조2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도 4000억원가량 늘어, 이를 포함한 전체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74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659조9000억원에서 올 2월에 654조4000억원까지 줄었다가 3월부터는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659조9000억원)부터는 6개월째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지난 4월에 2.6%까지 떨어졌다 8월 3.2%, 9월 3.6%, 10월 3.8% 등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정부의 8·28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로 주택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10월 가계대출 잔액을 항목별로 보면, 주택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단위: 조원)



담보대출이 전달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411조4000억원,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8000억원 늘어난 26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취급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475조2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200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17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비수도권은 258조2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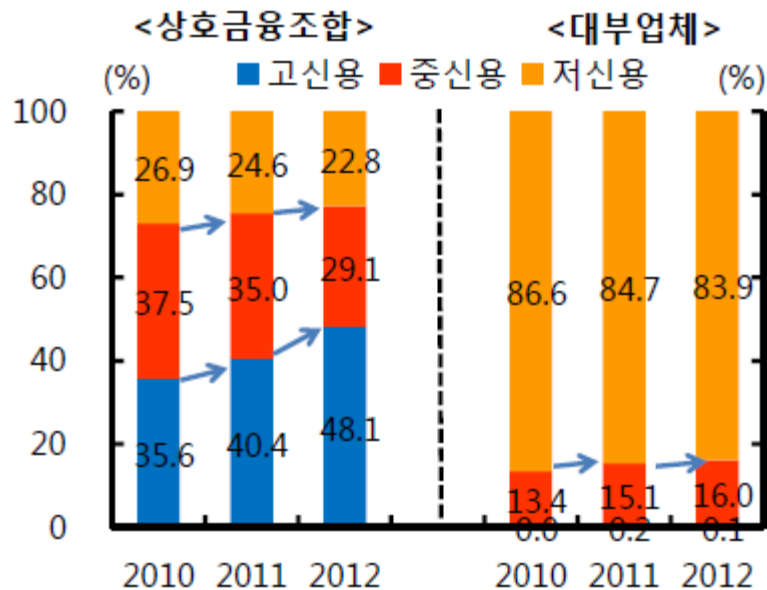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2. 국내경제 : ①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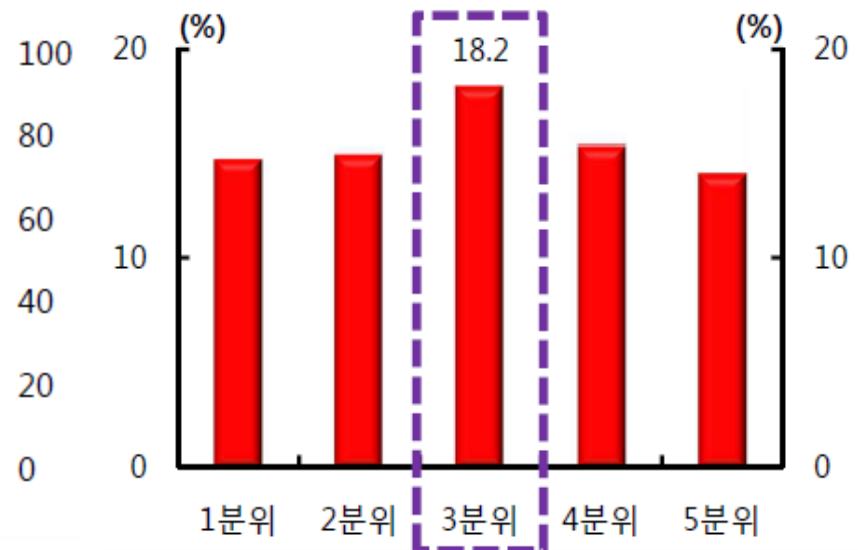
○ 중소득·중신용 가계의 채무부담 증대

고신용 가계는 상호금융, 중신용 가계는 대부업체 이용 비중 증가
중소득·중신용 계층에 속하는 자영업자 영업환경 위축 우려

중신용 차주 대출 현황



자영업자의 원리금상환부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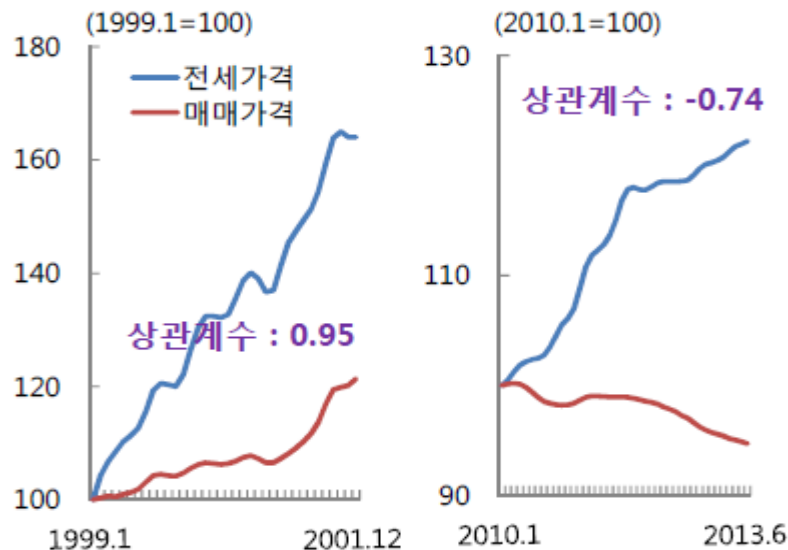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 국내경제 : ① 가계부채

○ 부동산시장 관련 잠재위험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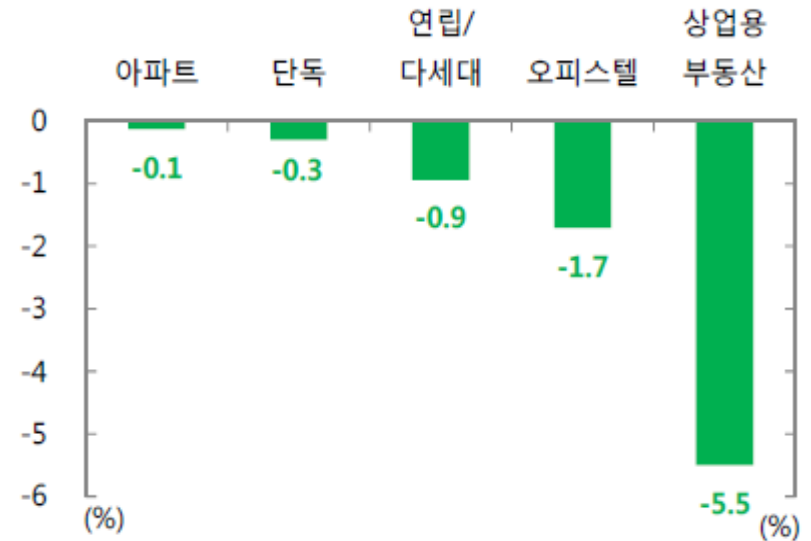
매매가격 부진한 채 전세가격만 상승, 세입자 대출 의존도 상승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자영업자) 간 동반 부실 개연성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관계



*자료 : 한국은행

부동산 월세가격 상승률



2. 국내경제 : ② 기업부실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 상승에 긴장

대규모 부도 가능성 낮지만
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시급

기업들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은행권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가계 부채로 인한 부실보다도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실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말 기준 각 시중은행들의 기업부문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기업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난해 말 1.82%에서 올 3·4분기 말 2.99%로 1.17%포인트나 크게 늘었다.

신한은행은 1.38%에서 1.82%로, 하나은행 역시 1.60%에서 1.89%로 대폭 올라갔다. 부실 기업 채권을 많이 보유한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2.37%에서 3·4분기 말 4.39%로 2%포인트 이상 급상승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료 : 각 은행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신은 현 상태를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대손 등으로 나눈다. 이 중 고정이하하는 고정, 회수의문, 대손 여신을 묶은 분류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고정이하여신 합산 금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값이다. 즉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하다

는 의미다.

특히 문제는 기업의 부실 여신 비율이 개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1000조원으로 인한 가계 부실에 대한 우려보다도 기업의 부실이 더 가파른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개인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 0.91%에서 올 3·4분기 말 0.90%로 오히려 0.1%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0.44%로 유지됐다. 신한은행은 이

기간 0.67%에서 0.78%로, 우리은행은 0.57%에서 0.71%로 늘었지만 4대 은행 모두 1% 이하를 유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환위기와 같은 대규모 부도나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하면 은행 등 금융권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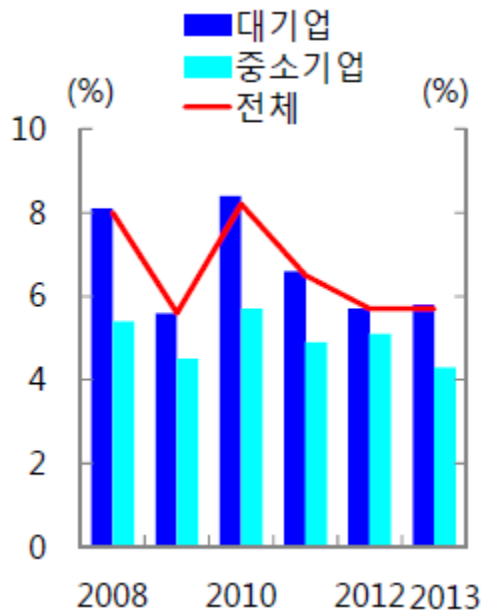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 국내경제 : ② 기업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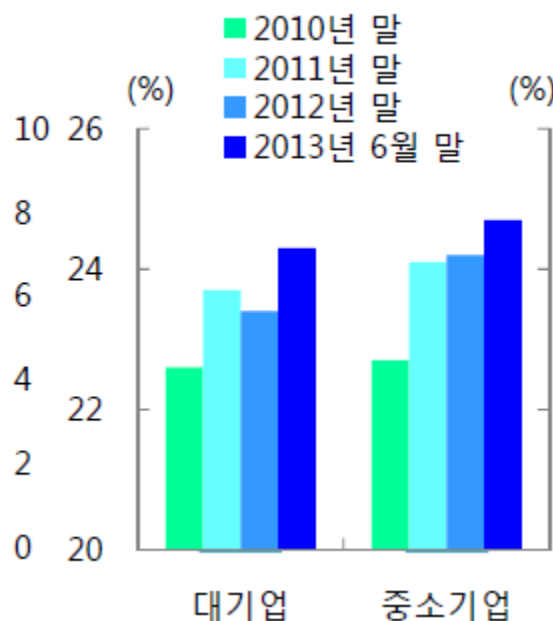
○ 기업 재무건전성 하락

매출액 영업이익률 하락, 차입금 의존도 상승으로 채무부담 증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0% 미만 업체 비중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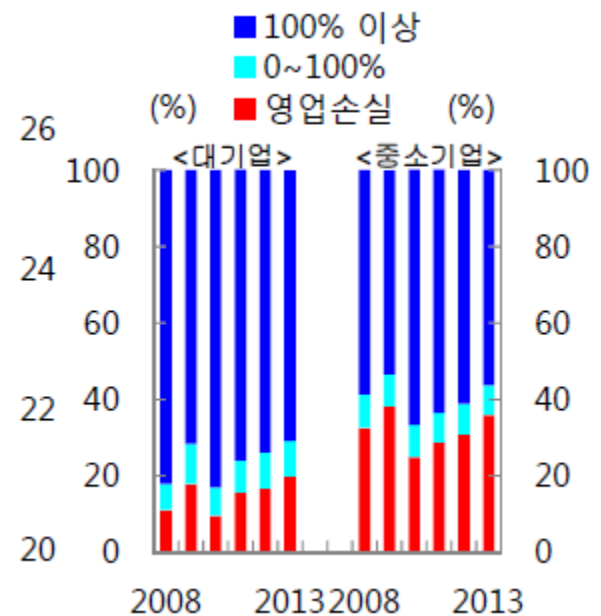
매출액 영업이익률



차입금 의존도



이자보상비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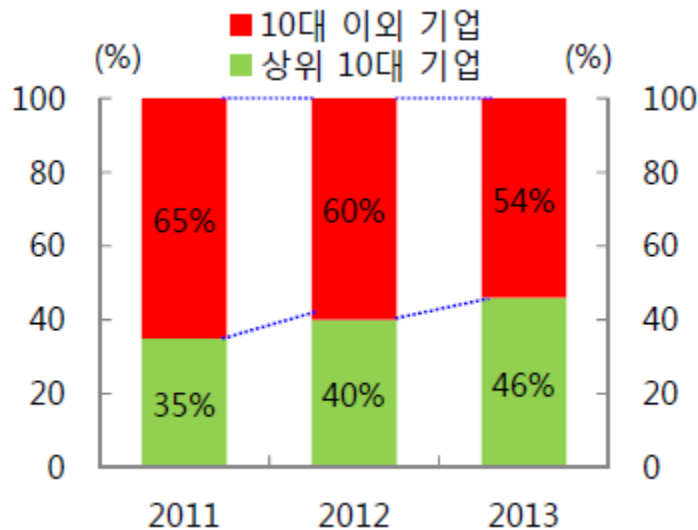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 국내경제 : ② 기업부실

○ 기업 간 양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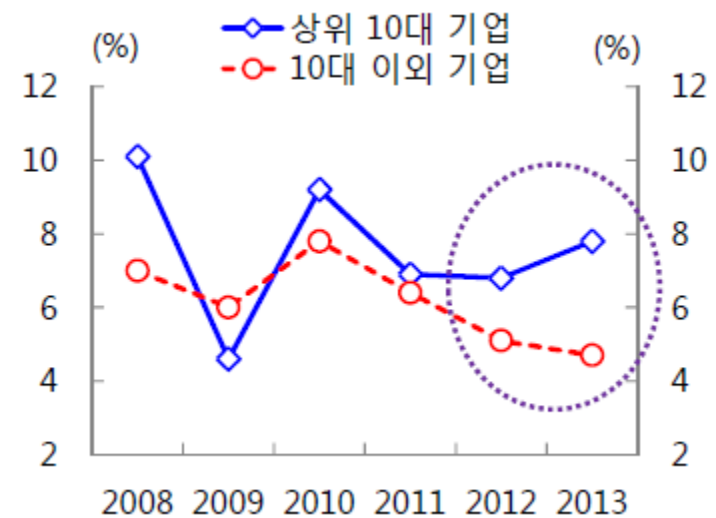
상위 10대 기업 영업이익 18% 증가, 10대 이외 기업 9% 감소
매출액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영업이익 하락 폭이 큰 상황

상위 10대 기업 및 10대 이외
기업의 영업이익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상위 10대 기업 및 10대 이외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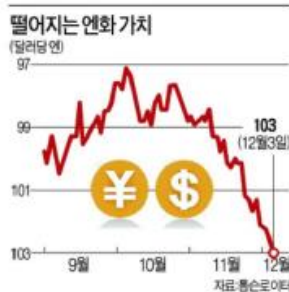
2. 국내경제 : ③ 원/엔 환율

“원·엔 환율 900원대 시간문제”

엔화값 5년 만에 최저

원·엔 환율의 하락 속도가 심상찮다. 100엔당 1030원대로 가파르게 떨어지던 원·엔 환율은 불과 5거래일 만에 1020원대로 추락했다. 원화값이 달러당 1060원을 오라가락하는 사이 하락세를 이어가던 엔화값이 103엔대로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원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 외환당국의 안간힘에도 엔저 가속화로 원·엔 환율 하락 흐름을 돌려놓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연내 900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원·엔 환율, 보름 만에 50원 급락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원 오른 1061원20전에 마감했다. 3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1060원대로 올라섰다. 미국 제조업 지표 개선에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7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엔·달러 환율은 더 큰 폭으로 뛰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환율은 장중 103.37엔까지 올라 연중 최고치(103.73엔)에 바짝 다가섰다. 이날 서울과 도쿄 외환시장의 달러 대비 환율로 산정한 100엔당 원화 환율은 1027원70전(오후 3시 기준)이었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보름새 50원 급락 1027원 시장, 엔화 약세에 베타 살아나던 수출 큰 타격

직전인 9월11일(1011원84전) 이후 5년3개월 만의 최저치(한국은행 고시 기준)다. 지난달 14일 이후 보름여 만에 50원 이상 급락했다.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이 양국 통화 흐름을 엇갈리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반면 일본에선 추가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승지 삼성전물 연구원은 “엔화 약세에 베타하는 투기세력까지 가세해 시장이 달러 강세 재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엔 1000원 붕괴 우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갑자기

빨라지지 않는 한 원화 강세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은 1~2분기 평균환율을 1000원대 초반으로 보고 있어 분기 중 1000원 선이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하고 않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엔저 가속화다. 9개 IB가 예상하는 3개월 엔·달러 환율 전망치는 102.7엔이지만 모건스탠리와 도이체방크는 110엔, 111엔까지 전망하고 있다. 달러당 원화 환율이 1060원에 머문다 해도 엔화 환율이 106엔대까지 오르면 원·엔 환율은 세 자릿수에 진입하게 된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원고·엔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1000원 선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크레디트스위스(CS)는 1분기, 삼성전물은 상반기 중 100엔당 95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양상이 현실화되면 해외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업종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수 부진 속에 수출마저 둔화할 경우 장기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정환/김유미 기자
ceoseo@hankyung.com

원·엔 실효환율 5년만에 역전

100엔에 1045원...석달만에 9%↓
한국 수출기업 타격 클듯

외환시장에서 원과 엔의 실효환율이 5년 만에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고전이 예상된다.

일본 《니혼게자이신문》은 27일 외환시장에서 원과 엔의 종합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실효환율’이 2008년 가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역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실효환율 지표의 하나인 ‘닛케이 통화 인덱스’를 보면 26일 현재 원화가 100.6으로 5거래일 연속으로 엔화(100.5)를 앞섰다. 이 수치는 2008년의 평균 환율을 기준(100)으로 놓은 것이다.

신문은 “엔·원의 실효환율 역전 현상이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다.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계속돼 온 원화에 대한 엔고 현상이 소멸된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27일 외환시장에서도 원·엔 환율은 100엔에 1045.01원을 기록해 불

과 석달 만에 9% 가까이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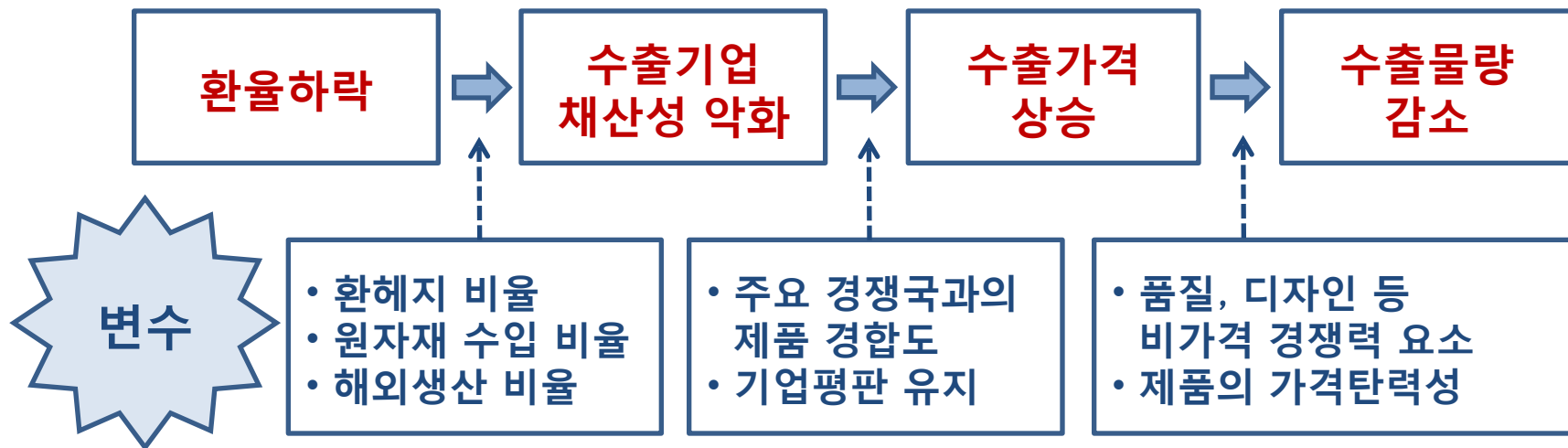
그동안 엔화 강세가 장기화된 것은 세계 경제를 공황의 문턱까지 몰고 간 리먼 사태의 충격으로 세계의 유동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한 과감한 통화확장 정책인 ‘아베 노믹스’ 이후 엔의 통화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지난 7월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증가하며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문은 원·엔의 실효환율 역전으로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좋은 실적을 내왔던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실효환율의 역전 현상에 대해 “한국산 제품의 수출 공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삼성전자 등과의 경쟁에서 뒤져 2012년 2월 파산 신청을 했던 일본의 반도체 업체 엘피다도 올 3월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도쿄/김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2. 국내경제 : ③ 원/엔 환율

-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
원/엔 환율 하락은 일본과 경합도 높은 업종에 타격



감사합니다

